

碩士學位論文

Jean Rhys의 *Wide Sargasso Sea*에
나타난 타자들의 저항



濟州大學校 大學院

英語英文學科

金 貞 惠

2003年 6月

Jean Rhys의 *Wide Sargasso Sea*에 나타난 타자들의 저항

指導教授 金 仙 姬

金 貞 惠

이 논문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3年 6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金貞惠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3年 6月

The Resistance of Others
in Jean Rhys' *Wide Sargasso Sea*

Kim Jung-hae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un-hee)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2003. 6.

목 차

I. 서 론	1
II. 타자들의 저항	6
1. 지배 담론과 시대 상황	6
2. 앙뜨와네뜨의 더블들	10
3. 타자들의 저항 양상	22
III. 로체스터와 저항 세력	33
1. 로체스터의 지배 담론	33
2. 다니엘: 모방을 통한 저항	43
3. 크리스토피: 오베아를 통한 저항	50
IV. 결 론	60
Bibliography	63
Abstract	69

I. 서 론

페미니즘과 탈식민주의적 경향의 작가로 각광받고 있는 진 리이스(Jean Rhys, 1894-1979)는 도미니카 윈드워드 군도(Windward Islands) 중 하나인 로소(Roseau)에서 출생하여,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녀의 아버지 리즈 윌리엄즈(William Rees Williams)는 도미니카로 건너간 웨일즈 출신의 의사였으며, 어머니인 미나 록하트(Mina Lockhart)는 도미니카 크리올계 여성이었다. 도미니카에서 성장하는 동안 리이스는 인종적 편견이 거의 없었던 아버지 덕분에 흑인 학생이 대부분인 카톨릭 학교에 다녔으며, 이 어린 시절의 학교 교육과 집안의 흑인 하인들을 통하여 직접 체득한 원주민 문화에 대한 지식은 리이스의 작품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즉, 리이스는 자신의 하얀 피부가 상징하는 백인 문화와 자신의 고향 도미니카의 흑인 문화 사이의 대조적이고 혼합적인 문화를 체험하며 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크리올의 문화적 유산은 그녀가 영국과 유럽에서 생활하는 동안 습득한 백인들의 문화 및 가치관과 대조되어 리이스의 작품 속에서 주인공의 정체성을 다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영국/카리브해, 백인/흑인이라는 대립적인 세계관은 리이스의 첫 번째 소설 *The Left Bank*(1927)를 시작으로 *Postures*(1928), *After Leaving Mackenzie*(1930), *Voyage in the Dark*(1934), *Good Morning Midnight*(1939)에서 작가 자신의 국외자적 삶을 다룬 자전적 내용 속에 잘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마지막 소설인 *Wide Sargasso Sea*(1966)에서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Wide Sargasso Sea*는 리이스의 자전적인 요소, 다시 말하면 카리브해에서의 출생에서부터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크리올 여성으로서의 모든 체험을 함축

하고 있으며, 이 경험들이 그녀의 타자성(ootherness)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¹⁾.

또한 리이스는 크리올 여성으로서 겪게 되는 타자성 뿐만 아니라 불행한 자신의 운명을 대변해 줄 여성들을 그녀의 소설 속에 등장시키고 있다. 리이스의 소설에 등장하는 소외되고 희생되는 여주인공들은 남성 중심 사회체제에서 그 위치를 찾지 못하고 소외되었으며, 일상적 삶에서 단절된 여성들이다. 이 소외된 여주인공들은 항상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자신에게 따라다니는 불행과 고통을 통해서만 스스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인물들이다. 남성에게 버림받을 것임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이들은 더욱 남성에게 집착하게 된다. 그 결과 리이스의 여주인공들은 성에 대한 갈망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게 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남성들에게 비추어짐으로써 경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이스의 작품에 나타나는 여주인공들은 정적인 존재로 남아있기를 거부하면서 점차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는 인물들이다. 다시 말하면, *Wide Sargasso Sea*의 앙뜨와네뜨(Antoinette)도 이와 같은 리이스의 전형적 여주인공들의 특성, 요컨대 사회적 억압과 남성의 지배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와 정체성을 주장하는 인물이다.

사실 리이스는 브론테(Charlotte Brontë)의 소설 *Jane Eyre*(1847)에 나오는 광녀 버사 메이슨(Bertha Mason)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 이 *Wide Sargasso Sea*를 집필하였다고 술회한다²⁾. 즉, 리이스는 가난한 고아로 고난을 이겨내고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성취하는 제인(Jane)보다 자신의 공간인 자메이카(Jamaica)에서 분리되어 냉혹한 영국의 한 저택에 광녀로 낙인찍힌 채 감금되

1) Carine Melkom Madorossian, "Double (De)colonization and the Feminist Criticism of *Wide Sargasso Sea*," *Literary Criticism* 26 (1999): p. 9, 24 June, 2001 <<http://newfirstsearch.oclc.org/WebZ/FSPage?pagename=ftascii:paget...>>

2) 리이스는 브론테의 버사 묘사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어린 시절 처음으로 *Jane Eyre*를 읽었을 때, 나는 왜 브론테가 크리올 여인들을 정신이상자로 이해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로체스터의 아내 버사를 광녀로 묘사한 것은 정말 유감이다. 이야기가 제대로 쓰여진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내가 그 이야기를 쓰기로 했다. 브론테 소설에서 유령처럼 그려진 버사에게 나는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기로 한 것이다." Francis Wyndham and Diana Melly, eds., *Jean Rhys: Letters, 1931-1966* (London: Andre Deutsch, 1984) p. 23.

어 고통 속에 죽어가는 서인도제도의 크리올 여성인 버사의 진정한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버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고자 했다. 크리올³⁾이라고 하는 인종적인 위치는 서인도제도와 영국에서 각각 흑인(원주민)과 백인 그 어느 편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의미하는데, 리이스는 크리올인 주인공 버사/앙뜨와네뜨의 정체성을 인종적, 역사적, 사회 계층적 의미에서 파헤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리이스는 버사가 영국으로 건너오기 전 서인도제도에서의 삶을 중심으로 *Wide Sargasso Sea*를 집필하였다. 버사가 영국으로 가게 되고 쏘넬드 저택에 불을 지르는 등의 기본 배경은 *Jane Eyre*와 연결되고 있지만, *Wide Sargasso Sea*는 버사/앙뜨와네뜨의 어린 시절을 비롯해 영국 쏘넬드 저택에 감금되기까지의 생활을 통해 새로운 삶을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독자적인 소설로 읽혀질 수 있다⁴⁾.

리이스가 집필을 시작한지 9년(1957-1966)만에 출판된 *Wide Sargasso Sea*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되어 왔다. 이 작품에 대한 연구는 페미니즘, 모더니즘, 탈식민주의 세 가지로 크게 요약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리이스도 여성작가, 모더니스트 작가, 식민주의 작가로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다. 페미니즘 비평은 주로 80년대 초반에 앙뜨와네뜨의 수용적인 여성 담론과 로체스터의 단일

3) 크리올은 유럽인들 중에서도 식민지에서 태어난 백인을 말한다. 특히, 백인 유럽인 크리올은 노예로 섬에 팔려왔던 흑인 원주민들과는 구분되며 유럽인과 원주민(인디언) 혹은 흑인들과 섞인 혼혈인종도 크리올로 분류된다. 인종적인 분류는 단순히 피부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족의 근원인 본토에서부터의 전치(轉置)에 근간을 둔다. 크리올은 바로 본토에서 전치된 인종이라고 볼 수 있다. Firdous Azim, *The Colonial Rise of the Novel* (New York: Routledge, 1993) pp. 182-83 참조.

4) 리이스는 인간다운 면모가 거의 결핍되고 영국인의 관점에서만 바라본 한쪽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Jane Eyre*에 등장하는 버사에 대해 “나는 *Jane Eyre*를 읽고 또 읽었는데, 역시 이 인물[버사]은 좀 키워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브론테의 소설에 나오는 크리올 여인은 역겹기만 하고 단 한번도 살아있는 인물로 나오지 않아요.... 이 여자가 만드시 무대 위에 나타나야 해요. 적어도 수궁이 가는 과거가 있는 여자여야 하고 왜 로체스터가 그녀를 지독히 홀대하면 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지 그 이유가 나와야 해요.” 라고 주장한다. Wyndham and Melly, eds., p. 156.

한 남성적 담론과의 대조를 분석한 해리슨(Nancy Harrison)(1988)과 성적 차이로 인해 야기되는 여주인공의 정신분열증을 분석한 아벨(Elizabeth Abel)(1979) 등의 비평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여성의 성차별, 성적 착취, 정체성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⁵⁾. 그리고 80년대 후반에는 *Wide Sargasso Sea*에 나타난 서술방식, 형태, 실험적인 글쓰기 등에 초점을 맞추는 분석이 에머리(Mary Lou Emery)(1990), 머제이(Kathy Mezei)(1987)와 같은 비평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에머리는 *Wide Sargasso Sea*에는 서인도제도의 토착신앙이었던 오베아(Obeah)의 힘이 작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서인도제도와 영국이 상징하는 이분법적 간극을 해체시키는 중요한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또 머제이는 이 작품의 다양한 화자구조를 분석하였다⁶⁾. 한편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이르러 탈식민주의 비평이 주를 이루면서 식민적 상황과 관계되는 지리, 문화, 인종적 범주의 측면에서 작품이 조명되었다⁷⁾. 특히, 크리올과 원주민의 인종적 위치와 그 정체성, 그리고 이들이 유럽 식민 국가의 지배 담론에 어떻게 저항하고 있는지에 그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왔다. 이에 대해 우레이지(Joya Uraizee)는 *Wide Sargasso Sea*가 앙뜨와네뜨의 남편 로체스터(Rochester)를 통해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이 식민지에 가한 획일적이고 주입적인 지배 방법을 드러내고 제국 주의적 문화원리에서 벗어나 복수성을 추구하며 식민지의 차별성을 강조

5) Nancy Harrison, *Jean Rhys and the Novel Women's Text*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8) pp. 196-200; Elizabeth Abel, "Women and Schizophrenia: The Fiction of Jean Rhys," *Contemporary Literature* 20, 2 (1979): pp. 154-77 참조.

6) Mary Lou Emery, "Obeah Night," *Jean Rhys at World's End: Novel of Colonial and Sexual Exil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90) pp. 40-59; Kathy Mezei, "And it Kept its Secret: Narration, Memory, and Madness in Jean Rhys' *Wide Sargasso Sea*," *Critique* 28 (1987): pp. 145-77 참조.

7) 인종적 측면에서는 Hellen Tiffin, "Mirror and Mask: Colonial Motifs in the Novel of Jean Rhys," *World Literature Written in English* 17 (1978): pp. 328-41; Gayatri Spivak, "Three Women's Text and a Critique of Imperialism," *Critical Inquiry* 12 (1985): pp. 243-61 등의 비평가들이 있으며, 역사적, 문화적 측면에서 Veronica Marie Gregg, *Jean Rhys' Historical Imagination: Reading and Writing the Creole* (Chapel Hill: UP of North Carolina, 1995) pp. 82-115 등을 꼽을 수 있다.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⁸⁾.

*Wide Sargasso Sea*에 대한 연구 동향은 90년대 이후 탈식민주의 비평이 등장하면서 제3세계인 서인도제도의 크리올 여성 앙뜨와네뜨의 정체성 문제가 부각되었고, 이와 함께 타자들의 전복적 저항이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경향은 앙뜨와네뜨의 행동과 외모, 작품의 결말에서 나타나는 그녀의 행동 등을 식민주의 담론에 대한 저항 행위로 해석하면서도 앙뜨와네뜨 외에 다른 유색인들의 행동과 모습 등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미하다. 따라서 *Wide Sargasso Sea*에 대한 비평적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그간 비평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유색인물들의 행동과 모습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먼저 주인공 앙뜨와네뜨와 타자들, 다시 말하면 유색인물들인 티아(Tia), 아네뜨(Anette), 아멜리(Amelie), 흑인감시자, 뱀띠스뜨(Baptiste), 다니엘(Daniel), 크리스토피(Christophine) 등이 보여주는 말과 행동 등을 분석하여 이들의 저항과 저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내고자 한다.

2장에서는 19세기 영국과 유럽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서인도제도의 식민적 상황을 관련지어 살펴보고, 티아, 아네뜨, 흑인 감시자, 아멜리를 통해 이들이 보여주는 저항의 의미를 분석하려고 한다. 3장에서는 영국의 지배가 앙뜨와네뜨의 새 아버지 메이슨씨(Mr. Mason)나 남편 로체스터에 의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고 지배계급인 이들의 지배 의식과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며, 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하려 한다. 이와 함께 이들 지배자들에게 적극적 저항을 하는 하위 주체(subaltern)인 다니엘과 크리스토피의 저항이 스피박(Gayatri Spivak)이 지적한 바 '타자들의 저항을 위한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더듬어 보게 될 것이다.

8) Joya Uraizee, " "She walked away without looking back" : Christophine and Enigma of History in Jean Rhys' *Wide Sargasso Sea*," *Literary Criticism* 28 (1999): p. 2, 25 June. 2001 <<http://newfirstsearch.oclc.org/WebZ/FSPage?pagename=ftascii:paget...>>

II. 타자들의 저항

1. 지배 담론과 시대 상황

19세기 영국인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종족이며, 자신을 제외한 타인종, 즉 유색인종들은 아주 열등한 존재라는 관점을 갖고 있었다. 또한 당대 영국인들은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남성에게 종속되어 살아가는 백인 여성을 유색인종과 다름없는 아주 열등한 사회적 존재로 치부하였다. 철저한 가부장 사회 속에서 남성에게 종속되어 그 정체성을 상실한 여성들과 주권을 상실하고 노예로 전락한 식민지 유색인에게는 지배와 억압이라는 공통적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급, 인종, 성별 면에서 열등한 타자의 범주에 속하는 여성과 유색인종은 사회적이나 문화적인 면에서 유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인들은 관습적인 성 역할에 항거하여 전복을 꾀하는 백인 여성의 행동을 유색인종의 반항 행위와 동일하게 인식했으며, 더 나아가 여성의 자아 성취, 정체성 추구라는 목표를 방해하고 말살시킴으로써 여성들의 자립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때로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을 유색인종의 외양에 직접적으로 비유함으로써 여성과 유색인종을 억압과 멸시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유색인과 여성들이 처했던 상황 때문에 파생된 결과였다.

리이스는 앙뜨와네뜨와 로체스터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식민지의 타자와 주체의 관계에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앙뜨와네뜨가 로체스터로부터 받게 되는 억압과 멸시는 타자가 주체로부터 받는 억압과 멸시가 된다. 더 나아가 로체스터는 앙뜨와네뜨 외에 유색인종들 특히 티아, 아멜리, 크리스토피를 사악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보고 억압과 고통을 주고 있는데,

이 또한 로체스터가 티아와 아멜리 그리고 크리스토프를 열등한 존재인 타자로 파악하고 있는데서 나온 당연한 결과이다.

앙뜨와네뜨가 억압과 핍박을 받고 지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그녀가 열등한 유색인종과 같은 타자의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가 크리올이라고 하는 낙인 즉, 백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 혼종(hybridity)으로 태어난 유색인종과 같은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당시 자메이카에서는 제국주의가 확고히 자리를 잡게 됨에 따라 식민지에 각종 농장들이 생겨나고 무역이 활발해지고 백인 상인들의 왕래가 빈번해졌다. 이런 여건 하에서 혼종은 제국주의와는 분리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자메이카는 바로 이 혼종이 발생하는 지역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가 피부색에 관계없이 혼종으로 차별 받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흑과 백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 지대(middle ground)¹⁾”, 혹은 회색 지대에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런 회색 지대에 속해있는 유색인종들은 백인들에게 동화되기를 원하면서도 그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백인들에게 커다란 위협적 존재로 나타나서 결국에는 저항하는 존재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리이스는 앙뜨와네뜨처럼 흑과 백 사이의 회색지대에 존재하는 혼종이며 앙뜨와네뜨는 리이스의 분신이라 할 수 있고 리이스는 자신의 체험을 앙뜨와네뜨에게 투사하여 백인들에게 저항하며, 백인들의 이데올로기를 전복시킬 가능성을 지닌 인물로 그려내고 있다 할 수 있다.

*Wide Sargasso Sea*는 서인도제도에서의 작가 자신의 체험을 말하고 있는 자전적인 이야기이다. 리이스는 자서전 *Smile Please*의 초안에서도 제네바 농장(Geneva Estate)과 영국에서의 춥고 어두웠던 방에 대한 경험들이 *Wide Sargasso Sea*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술회한다²⁾. 그레그(Veronica Marie

1) Rudiard Joel Alcocer, *Beyond Hybridity: Discourses of Heredity in Caribbean Narrative* (Iowa: Iowa University Press, 2002) p. 231 참조.

Gregg)의 지적처럼³⁾ 리이스는 어린 시절에 체험한 사건들을 작품 속에서 구체적인 사건과 낱말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미니카에서 생활하는 동안 제네바 농장과 록하트(Lockharts)에서 있었던 작가의 가족사를 아네뜨의 이야기와 끌리브리(Coulibri)의 화재를 비롯한 몇 가지 사건들로 이 작품에 그대로 재현했다⁴⁾.

*Wide Sargasso Sea*는 실제 노예해방령(Emancipation Act, 1833)이 선포된 직후, 1830년대의 서인도제도의 자메이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1808년과 1831년에 두 차례에 걸쳐 노예반란이 자메이카에서 일어났고, 그 진압과정에서 드러난 영국인의 잔인성은 노예제 폐지 운동에 불을 붙여 결국 2년 후에 노예해방령이 선포되는 계기가 된다. 이 역사적 사건 덕분에 흑인 노예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이들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던 백인들의 농장제도와 귀족사회는 붕괴하게 된다⁵⁾.

1848년 이후 농장들은 부채로 모두 붕괴되었고, 서인도제도에서 백인 농장주(크리올)들의 자살은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노예해방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에 이에 대한 대가로 영국 정부가 약속한 보상금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던(Still waiting of this compensation the English promised when the Emancipation Act was passed.)”⁶⁾ 농장주들은 채권자들의 지불 요구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당

2) 리이스는 “나는 무언가를 억지로 만들어내진 않아요. 나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단지 있었던 일을 쓸 뿐이에요. 내 소설들은 완전히는 아니지만 거의 내 삶에 관한 것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그녀의 인생에서 경험한 중요한 사건들이 소설 속에 풍부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Carole Angier, *Jean Rhys* (Middlesex : Penguin Book Ltd., 1985). p. 17.

3) Veronica Marie Gregg, *Jean Rhys' Historical Imagination: Reading and Writing the Creole* (Chapel Hill & Lond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5) p. 24.

4) 반면 우레이지(Joya Uraizee)는 끌리브리 화재와 서인도제도의 크리올의 몰락에 대해 리이스가 어떤 동정적 감정도 지니지 않고 앙뜨와네뜨나 몰락한 크리올 계급의 농장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서술했다고 지적한다. Joya Uraizee, ““She walked away without looking back” : Christophine and Enigma of History in Jean Rhys' *Wide Sargasso Sea* .” *Literary Criticism* 28 (1999): p. 4, 25 June. 2001 <<http://newfirstsearch.oclc.org/WebZ/FSPage?pagename=ftascii:paget...>>

5) Moira Furguson, *Colonialism and Gender Relations from Mary Wollstonecraft to Jamaica Kincaid* (New York: Colombia University Press, 1993) pp. 95-97 참조.

시 노예해방령이 발표된 후, 농장에서는 노예 대신에 도제제도를 적용해 임금을 주는 노동자를 고용해야만 했다. 이러한 이유로 임금은 상승되었고, 설탕 값은 폭등하게 된다. 그 결과 백인 농장주들은 높은 임금과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농장을 포기하는 사태가 다발하게 되었고, 이들의 경제적인 몰락은 계속해서 문화, 질서, 가치관의 붕괴를 가져왔다. 이처럼 노예들의 노동 착취를 근거로 하여 구축된 크리올들의 귀족 사회가 붕괴되면서 지배계급인 크리올들은 서인도제도에서 노예들의 적대감을 감수해야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의 원주민들과 동화하면서 백인 행세를 하려 들었다.

크리올인 앙뜨와네뜨 가족 역시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 앙뜨와네뜨의 어머니 아네뜨(Anette)는 크리올이자 프랑스 식민지인 마르티니크(Martinique) 출신이며, 이미 사망한 백인 농장주인 코즈웨이씨(Mr. Cosway)의 아내였다. 그러나 “영국인과 프랑스 사람들은 서인도제도에 정착한 시절부터 오랫동안 개와 고양이처럼 앙숙이었으므로(...for French and English like cat and dog in these islands since long time.)” (57) 아네뜨는 프랑스계 태생인데다, “아름다움 그 자체처럼 아름다웠으므로(...because she is[sic] pretty like pretty self....)” (9), 영국인들이 모여 사는 “스페니쉬 타운(Spanish Town)” (9)에 소속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입장에 처하게 된 아네뜨와 같은 크리올들은 그곳 백인들 사회에 적합한 가치관을 갖출 수 없었다. 더구나 농장이 붕괴되고 크리올들이 몰락하게 되자 자유로운 몸이 된 노예들은 이들을 “흰 바퀴벌레(white cockroach)” (13)라고 경멸하면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여기서 흰 바퀴벌레는 “흰 검둥이(white nigger)” (14)라는 의미를 띠고 있어서 백인 여성인 아네뜨와 앙뜨와네뜨가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유색인종과 유사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회적 배척과 함께 아네뜨는 당시 19세기 남성 우월적인 가부장적 규범

6) Jean Rhys, *Wide Sargasso Sea* (New York and London: Norton & Company, Inc. 1999) p. 9. 이후 *Wide Sargasso Sea*의 인용은 본문에 쪽수만을 밝힌다.

과 이데올로기 속에서 다시 한번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식민지 국가에 대한 영국인들의 억압과 착취라는 형태가 가정에서도 가부장제라는 형태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제국의 남성들이 억압하고 착취하는 대상이 식민지의 원주민에서 가정에서는 여성으로 바뀌어 나타나게 된다. 당시 사회에서는 남성에게 가장으로서의 절대적인 권력과 경제력을 부여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고 여성은 경제권이나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야만 했다.

2. 앙뜨와네뜨의 더블들

제국주의와 가부장제라는 역사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어머니 아네뜨와 앙뜨와네뜨에게 주어진 역할은 억압적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익숙한 아네뜨는 죽은 남편을 대신해 집안의 유일한 아들 피에르(Pierre)에게 순종하고 의지하려고 하며, 딸인 앙뜨와네뜨를 홀대한다.

앙뜨와네뜨 역시 아들만 아끼는 어머니의 홀대에 소외감을 느끼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흑인들에게조차 배척 당하였다. 실제 리이스는 자신이 태어나기 전 언니였던 엘라(Ella)의 죽음으로 인해 상실감을 느끼는 부모에게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둘째 딸 리이스의 출생으로 큰 딸을 잃은 어머니의 상실감은 잊혀질 줄 알았지만, 어머니는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항상 큰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이러한 모성의 결핍으로 리이스는 상실감과 공허함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불안한 삶을 살아야 했다. 또한 리이스는 이런 모성의 부재를 보완해줄 아버지의 사랑도 매우 부족했으며, 모질고 매정한 유모의 시선도 견디기 어려웠기에 항상 이웃이나 주변 흑인들의 따뜻함과 역동성, 소속감을 부러워하고 자신도 흑

인 가족의 일원이 되고자 하였다.

리이스의 실제 경험과 소설의 등장인물의 성격을 분석한 앵기어(Carole Angier)는 리이스의 소설은 사랑과 버림받음, 증오와 복수, 숙명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작가의 개인적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한다⁷⁾. 이 작품에서도 주인공 앙뜨와네뜨는 로체스터의 눈에 “우유부단하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
는(She was undecided, uncertain about facts— any fact.)” (52)인물로 보여진다. 어머니 또한 앙뜨와네뜨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로 여긴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관심을 쏟기보다는 “성가시게 구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피에르와 함께 걷거나 앉아있기를 원했으며 조용하고 편안하게 혼자 남아있기를 원했고(She wanted to sit with Pierre or walk where she pleased without being pestered, she wanted peace and quiet.)” (11) 앙뜨와네뜨가 가까이 다가가려 하면 귀찮다는 듯이 “밀어내 버린다(...she push me[Antoinette] away....)” (11). 리이스의 어머니가 죽은 언니와 이모를 그리워했듯이 어머니의 사랑은 죽음을 통해서만 얻어진다고 생각하여 작품 속의 앙뜨와네뜨도 신혼 초에 남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항상 죽음에 대해 언급하고(Always this talk of death.)” (54), “죽을 수 있다면 그 순간이 행복하다(If I could die. Now, when I am happy.)” (55)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홀대하던 어머니의 빈자리를 대신해 사랑을 준 크리스토�핀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조언을 얻고, 키스하고 그녀의 몸 냄새를 기억하는 등 어머니와 같은 사랑과 애정을 느낀다.

그래서 앙뜨와네뜨는 유모 크리스토�핀의 친구 딸인 흑인 소녀 티아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항상 그녀와 함께 지내려고 노력한다. 앙뜨와네뜨의 이런 노력 덕분에 “곧 티아는 친구가 되었고, 거의 매일 아침 티아를 만났다(Soon Tia was my friend and I met her nearly every morning....)” (13). 그러나 앙뜨와네뜨와 티아의 관계는 위기를 맞게 된다. 유모 크리스토�핀으로부터 받은 몇 페니에 탐

7) Angier, p. 16.

을 낸 티아가 앙뜨와네뜨에게 물 속에서 물구나무를 서는 내기를 하자고 제안한다. 티아는 앙뜨와네뜨가 물구나무를 서는데 실패를 했다고 우기면서 “3페니를 가져간다(Then she picked up the money)” (14).이 순간 앙뜨와네뜨는 티아를 “교활한 흑인(cheating nigger)” (14)이라고 욕하며 반짝이는 동전을 던지고는 떠나 버린다. 이처럼 우정을 나누었던 둘 사이의 공감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깨지고 만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물구나무 내기에서 잃게 되는 3페니가 바로 인종과 계급, 제국과 식민지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는 사실이다. 앙뜨와네뜨는 흑인 소녀 티아에게 3페니를 잃고 그녀가 “[앙뜨와네뜨를 비롯한] 우리 모두들은 거지처럼 가난하다(...all we are[*sic*] poor like beggar....)” (14)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이 말은 앙뜨와네뜨 자신이 백인의 피부색을 지니고는 있으나, 거지처럼 가난하기 때문에 유색인종이라는 최하위 계급으로 전락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흑인들은 우리들[앙뜨와네뜨의 가족]이 가난해지자 예전처럼 심하게 적대감을 드러내지는 않았는데(The black people did not hate us quite so much when we were poor.)” (20), 이는 흑인들이 그녀의 가족이 자신들과 같은 계급으로 전락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앙뜨와네뜨의 가족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경제적인 궁핍에 시달리고, 백인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흑인들에게도 소외당하는 삶을 지속하게 된다. 그러나 티아가 말한 흰 바퀴벌레라는 욕설은 이런 소외를 시인하려고 하지 않는 앙뜨와네뜨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면서 그녀의 사회적 위치를 각성시켜준다.

“진짜 백인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Real white people, they got gold money.)” (14) 백인의 인종적인 우월감은 바로 경제력을 뜻하기 때문에 “이제 돈이 없는 코즈웨이 가족은 흰 검둥이나 다름이 없으며, 차라리 흑인이 가난한 흰검둥이 보다 더 낫다(...white people nothing but white nigger now and black nigger better than white nigger.)” (14)는 것이다.

또한 3페니처럼 앙뜨와네뜨가 입고 있던 드레스도 19세기 서인도제도의 크리올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설명해준다. 아네뜨의 사회적 지위도 그녀가 입고 있는 옷에 비유되어지는데, 백인들로부터의 소외와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녀가 승마를 할 때 입는 옷이 점차 낡아지는 것에 비유된다. “어머니의 승마복 색이 바래져가자, 흑인들은 이 옷이 바로 돈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after her riding clothes grew shabby, they notice clothes, they knew about money)” (10), “그들은 어머니의 가난함을 무리 지어 서서 조롱하였다(...the black people stood about in group to jeer at her....)” (10). 내기에서 진 앙뜨와네뜨는 벗어놓은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지만, 티아가 자신의 옷을 바꿔 입고 달아나 버린 것을 알게 된다. 여기서 앙뜨와네뜨의 바뀐 옷은 그레그의 지적처럼 “희생자/가해자(victim/victimizer), 유산자/무산자(have/have-not)” 라고 하는 카테고리 전복을 의미하듯이⁸⁾ 자메이카에서 백인이며 지배 계급이었던 앙뜨와네뜨는 이제 희생자이며 무산계급인 흰검둥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자 앙뜨와네뜨의 어머니는 티아의 옷에 배어 있는 흑인성이 딸에게 감염된다고 생각하여, “그 흑인 소녀의 더러운 옷을 던져 태워 버리라(Throw away that thing. Burn it.)” (15)고 말한다. 그러나 앙뜨와네뜨는 이미 티아와의 동일시를 상징하는 흠이 묻은 옷을 바꿔 입은 상태이다. 이 장면에서 티아의 옷은 앙뜨와네뜨 가족의 애매한 사회적 지위를 암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 아네뜨로부터 사랑 받지 못하는 딸처럼 자메이카의 백인 계급으로부터 추방된 가족들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즉 달튼(Elizabeth Dalton)의 주장처럼 결국 옷을 바꿔 입는다는 사실은 더럽혀지고, 오염되고 사랑 받지 못하는 운명에 처할 앙뜨와네뜨의 인생을 예시한다⁹⁾고 할 수 있다.

티아와 싸우고 집으로 돌아온 앙뜨와네뜨는 집에 손님이 와 계신 것을 알게

8) Gregg, p. 90.

9) Elizabeth Dalton, “Sex and Race in *Wide Sargasso Sea*,” *Partisan Review* 67(2000): pp. 433-34 참조.

된다. 손님은 부유한 농장주인 메이슨씨(Mr. Mason)였는데, 후에 그녀의 새 아버지가 된다. 하지만 그의 방문은 “오늘 문젯거리가 집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Trouble walk into the house this day....)” (15)라고 묘사되듯이 ‘사건의 원인이 될 큰 재앙’을 가져오게 된다. 실제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아네뜨와 결혼하여 농장의 새 주인이 된 메이슨씨가 자메이카 흑인의 게으름을 빈정대며 인도에서 노동자들을 데려오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어머니는 하녀 앞에서 직접 그런 계획을 이야기하는 일을 삼가는 것이 현명하며, 그 하녀를 믿지 않아요(...it would be wiser not to tell that woman your plans... I don't trust her.)” (21)라고 메이슨씨에게 충고한다. 그러나 흑인에 대한 정보와 충고를 무시한 메이슨씨 때문에 앙뜨와네뜨가 가장 사랑하는 곳, 풀리브리(Coulibri)는 흑인들의 폭동에 의해 불에 타버리게 되고, 아들 피에르와 앵무새 코코(Coco)가 죽게된다. 왜냐하면 메이슨씨가 이 인도 노동자들을 데려올 계획을 저녁 식탁에서 얘기하는 동안, 옆에서 “이를 엿듣던(Myra is listening.)” (21) 흑인 하녀 마이라(Myra)가 이 사실을 다른 흑인들에게 알려주어 방화를 주도하고, 그녀 자신도 앙뜨와네뜨의 남동생 피에르를 돌보는 임무를 유기한 채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흑인 하녀 마이라는 자신의 임무를 버리고 떠나는 방식으로 이 집 백인들에 대한 복수를 자행한 것이다.

I thought, Pierre is dead. He looks dead.... ‘The little room is on fire and Myra was not there. She had gone. She was not there.’ ... “she left him, she ran away and left him alone to die .” said my mother, still whispering.(23-24)

위 인용에서 보여지듯이, 방화의 에피소드에서 나타난 마이라의 행동은 당대 자메이카의 백인 농장주 계급에 대한 흑인들의 태도를 보여준다. 즉 메이슨씨 옆에서 “식탁 한 쪽에 서서 접시를 바꿔주려고 기다리며 서있는 동안 (...standing by the

sideboard. Waiting to change the plates.)” (21) 그 가족의 이야기를 엿듣던 마이라의 행동은 백인들로부터의 멸시에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는 흑인들의 모습을 의미한다.

흑인들의 백인에 대한 이런 경계는 브래스웨이트(Kamau Brathwaite)가 지적 하듯이 모든 장소에서 감시의 시선을 놓지 않는 흑인들의 모습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1820년대 서인도제도의 농장에서 일하던 흑인 노예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Their table is surrounded by domestic servants.... Where perhaps for want of other subjects, they introduce the favorite topic, the conduct of negroes, and their particular management of them. On these Occasions every things relative to them is freely discussed.... This being the real state of the case, can it be wondered at, that the negroes are increasing their knowledge of civil affairs? Don't we know that servants have got eyes and ears as well as ourselves? And that it is natural enough for them.... to rehearse the observations of their masters, when those have a particular reference to themselves?¹⁰⁾

위 인용에서 보여지듯이 흑인들이 항상 백인 주인을 경계하고 감시하기 위해 자신의 눈과 귀를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은 그들에게 숨겨진 무서운 힘을 암시하고 있다.

실제로 앙뜨와네뜨는 꿀리브리 화재 중에 자신의 가족을 쳐다보며 비웃고 있던 흑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햇불이나 칼을 든 사람들보다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자각한다.

10) Kamau Brathwaite, *Contradictory Omens: Cultural Diversity and Integration in the Caribbean* (Kingston, Jamaica: University of the West Indies, 1974) p. 14.

Some of them were laughing and waving sticks, some of the one at the back were carrying flambeaux and it was light as day... And I was afraid, because I knew that ones who laughed would be the worst.(25)

즉, 앙뜨와네뜨는 그들이 겉으로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녀와 같은 크리올이나 백인을 더 증오했고 있음을 인식한 것이다.

또 어느 흑인은 꿀리브리 화재가 났을 때 백인을 지네에 비유하면서 “지네는 밟아서 으깨야 해, 으깨서 죽여야 한다구. 한 부분만 남겨 놓아도 그게 다시 자란다구(“You mash centipede, mash it, leave one little piece and it grow again)” (43)라며 조롱한다. 이 장면에는 백인에 비유된 지네를 밟아 으깨어 죽이고 있듯이 서인도제도에서 백인들을 완전히 몰아내 버리고자 하는 원주민들의 바람이 담겨 있다. 이와 같이 흑인들은 백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으며, 그 적대감은 자메이카 섬의 많은 농장에서 있었던 방화와 연결된다. 그러므로 방화와 적대적인 시선 그리고 조롱의 장면은 당시 백인에 대한 흑인들의 반감이 얼마나 거세었는가는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확대해 보면, 꿀리브리의 화재 순간은 바로 마이라 뿐만 아니라 자메이카 흑인 전체의 반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앙뜨와네뜨의 가족은 흑인의 자유와 배반의 희생자로 전락하고 있다.

이처럼 앙뜨와네뜨의 가족은 흑인들의 저항의 대상이 되며, 흑인들로 인한 가족의 희생 속에서 티아와 앙뜨와네뜨의 동일시는 극화된다. 앙뜨와네뜨는 흑인인 티아와 항상 함께 먹고, 놀고, 자면서 티아와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한다. 앙뜨와네뜨는 티아와의 우정이 사회 계급적, 인종적 차이를 초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I saw Tia... and I ran to her, for she was all that was left of my life as it had been. We had eaten the same food, slept side by side, bathed in the same river. As I ran, I thought, I will live with Tia and I will be like her. Not to leave Coulibri. Not to go. Not. When I was close saw the jagged stone in her hand but I did not see her throw it. I did not feel it either, only something wet, running down my face. I looked at her and I saw her face crumple up as she began to cry. We started at each other, blood on my face, tears on hers. It was as if I saw my self. Like in a looking-glass.(27)

위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흑인 소녀 티아는 거울 이미지로서 앙뜨와네뜨의 일부이며 그녀의 타자가 되고 있다.

에머리(Mary Lou Emery)의 주장처럼 이 두 소녀의 맞대면은 두 소녀가 동일 인물임을 의미하며, 이러한 더블의 형태를 통해 앙뜨와네뜨는 과거를 되찾게 되고, 어린 시절을 회복하게 되는 변화를 시작한다¹¹⁾. 그렇기 때문에 앙뜨와네뜨는 자신의 정체성을 되돌려줄 동일시의 대상으로 티아를 필요로 한다. 이 둘은 꼴리브리 폭동 중에 마지막으로 만나지만 앙뜨와네뜨가 티아를 '교활한 흑인' 이라고 부르며 멸시한다. 결국 꼴리브리의 화재로 도망치던 앙뜨와네뜨가 타자인 티아로부터 받은 것은 바로 일그러진 얼굴뿐이었다. 꼴리브리 화재 중에 티아가 앙뜨와네뜨에게 돌을 던지는 배반행위로 인해 앙뜨와네뜨의 더블관계는 부서지고, 어린 시절의 순수하고 동물적인 상태인 흑인성(blackness)에서 앙뜨와네뜨는 완전히 단절되어버린다. 티아도 앙뜨와네뜨를 사회적으로 죽어버린 존재일 뿐만 아니라 크리올의 깨어진 자화상을 담고 있는 대상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티아는 비록 가난하고 앙뜨와네뜨보다 낮은 계급의 인물이지만, 앙뜨와네뜨에

11) Mary Lou Emery, *Jean Rhys at World's End: Novel of Colonial and Sexual Exil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90) p. 42 참조.

게 티아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불은 항상 티아에 의해서만 지피졌으며, 발길에 채이는 어떤 돌도 티아의 발에는 상처를 내지 않았고, 그녀가 우는 모습을 앙뜨와네뜨는 결코 본적이 없었다(...fires always lit for her, sharp stones did not hurt her bare feet, I never saw her cry.)” (13). 그녀에게 티아는 자메이카 섬과 서로 인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더 나아가 섬과 하나가 된 듯이 거대해 보였다. 이처럼 티아는 앙뜨와네뜨가 지니지 못한 것을 내포한 티아를 무척 좋아한다. 티아에 대한 앙뜨와네뜨의 각별한 애정을 두 인물의 차이점에 근거하여 분석한 샤피로(Barbara Ann Schapiro)도 티아는 다른 흑인들처럼 무력할 정도로 수동적이거나 복종하는 태도를 지니지 않고, 오히려 단호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인물일뿐만 아니라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앙뜨와네뜨의 자아를 반영한다고 말한다¹²⁾.

그런데, 앙뜨와네뜨와 티아의 관계 대해 브래스웨이트는 티아가 앙뜨와네뜨의 거울 이미지이기는 하지만 티아와 앙뜨와네뜨의 우정은 결코 존재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비록 티아가 앙뜨와네뜨의 거울 이미지로 등장하기는 하지만 서인도 제도에서 백인(혹은 유럽인)은 역사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를 풀어 설명하면 이 두 인종 사이에는 결코 극복되어질 수 없는 신의 섭리(Providence)가 존재하는데, 이는 피부가 검은 이들은 피부가 하얀 특권계급에게 “나무를 베고 물을 길는 노예(hewers of wood drawers of water)”로서 형성되어졌다는 것이다¹³⁾. 이런 까닭으로 리이스는 현실세계 속에서 이 둘(두 인종간)의 결합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소설 안에 ‘꿈’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하여 이 두 사람이 더블임을 강조하고 있다.

꿈은 리이스에게 “진실을 보여주는(make it[dream] a realistic truth)” 역

12) Barbara Ann Schapiro, “Boundaries and Betrayal in Jean Rhys’ *Wide Sargasso Sea*,” *Literature and the Relational Self* (New York: New York UP, 1994) pp. 97-98 참조.

13) 반면 브래스웨이트는 구약성서 여호수아서 9장 27절(“그러니 이제 너희는 저주를 받아 대대로 우리 하느님의 집에서 나무를 베고 물을 길으며 종살이를 해야한다.”)을 근거로 유색인과 백인의 주종 관계를 지적하고 있다. Brathwaite, p. 36 참조.

할¹⁴⁾이라는 중요성을 띤다. “그녀는 프로이트(Freud)의 꿈의 논리를 앙뜨와네뜨의 꿈에 그대로 적용하여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검열로 작용하는 많은 요소로 인해 눌러지고, 버려지고, 묻혀져 버렸다고 생각되던 어린 시절의 본능들이 꿈속에서 되살아난다고 말한다”¹⁵⁾. 한 예로 앙뜨와네뜨는 티아와의 마지막 만남 이후 정체성의 공백을 경험하게 되지만, 흑인들(유색인들)과의 유대관계와 크리올적 유산은 그녀가 억압받을 때, 꿈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어 자아를 되찾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앙뜨와네뜨는 흑인 소녀 티아와의 동일시가 억압되고 학대자로 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동생 피에르의 죽음과 꼴리브리의 화재로 광녀의 모습으로 변해 버린 어머니는 어느 시골집 별장에 감금되고, 앙뜨와네뜨는 수도원 학교에 보내지게 된다. 학교에 가는 첫날, 앙뜨와네뜨는 도중에 길에서 한 흑인 소녀와 크리올 소년을 만나게 된다. 이 흑인 소녀도 티아처럼 앙뜨와네뜨와 더블로 보여질 수 있으나, 이미 티아와의 분리를 겪은 앙뜨와네뜨는 자신에게 내포되어진 흑인성을 부정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냄새나는 흑인 소녀의 모습으로 투영되어진 여성의 모습을 경멸한다. “그 소녀가 웃으면서 손가락에서 딱딱 소리를 내었고, 그때마다 나는 가슴이 쿵광거리고 내 손에 땀이 베이기 시작할 정도(Then the girl grinned and began to crack the knuckles of her fingers. At each crack I jumped and my hands began to sweat.)” (29)라고 묘사되듯이 앙뜨와네뜨는 두려움을 느끼며 그 흑인 소녀의 시선을 피한다. 그러자 “자기를 쳐다보지 않는다(You don't want look at me.)” (30)는 소녀의 말처럼 흑인 소녀는 앙뜨와네뜨가 바라보기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다. 즉, 티아와 흑인 소녀의 이미지는 이제 앙뜨와네뜨의 무의식 속에 추하고 더러운 것이 되어 버린다.

뿐만 아니라, 이 흑인 소녀 옆에 서 있던 크리올 소년은 앙뜨와네뜨에게 더

14) Wyndham and Melly, eds., p. 214.

15) 윤정길, “억압받는 자의 “광기”: 진 뤼스의 『광활한 싸가소 바다』 연구”, 『영어영문학』 제42권 1호 (1996): p. 132.

큰 공포심을 유발한다. 크리올 소년의 “하얀 피부와 주근깨(...a white skin, a dull high white covered with freckles....)” (29) 그리고 붉은 머리는 분명 백인의 것이지만, 그의 “두꺼운 입술과 초록색 풀잎처럼 작은 눈(a negro’s mouth and he had small eyes, like bits of green glass)” (29)은 흑인을 연상시킨다. 소년 역시 앙뜨와네뜨처럼 흑인이나 몰라토 여성과 결혼한 스코틀랜드나 영국 노예주의 후손이다. 이 소년이 앙뜨와네뜨에게 공포감을 주는 이유는 바로 자신도 그 소년처럼 흰점둥이라고 불리우는 크리올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그 소년은 앙뜨와네뜨의 또 다른 더블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소년은 앙뜨와네뜨 자신의 불안정한 이미지이며, 크리올의 하얀 피부가 결코 백인의 순수한 혈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티아를 비롯하여 앙뜨와네뜨의 더블 혹은 거울 이미지로 보여진 이들 외에 또 다른 중요한 더블은 바로 앙뜨와네뜨의 어머니 아네뜨이다¹⁶⁾. 사실 아네뜨라는 이름과 앙뜨와네뜨라는 이름은 각각 프랑스와 영국에서 불려지는 이름이다. 더구나 앞서 언급한 티아라는 이름은 아네뜨와 앙뜨와네뜨의 애칭이기도하다¹⁷⁾. 어머니와 같은 이름 외에도, 앙뜨와네뜨는 어머니의 아름다운 외모와, 댄서로서의 재능을 물려받았다. 심지어 어머니의 “검은 눈썹사이에 깊게 칼날처럼 패인 주름(A frown came between her black eyebrows, deep it might have been cut with a knife.)” (11)과 같은 것을 앙뜨와네뜨도 지니고 있다. 또한 이 모녀의 결혼 생활은 식민지 농장 사회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이 둘 모두 지배계급인 영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얻으려고 한다. 즉, 아네뜨는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흑인들에게서까지 멸시를 받아 추락한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기

16) 반면, 페이얏드(Mona Fayard)는 아네뜨가 앙뜨와네뜨에게 어머니로서의 ‘거울 이미지’를 주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아네뜨는 아들에게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으려고 할 뿐이어서 앙뜨와네뜨는 어머니로부터 받아야 할 자아정체성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게 되어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이다. Mona Fayard, “Unquiet Ghosts: The Struggle for Representation in Jean Rhys’ *Wide Sargasso Sea*,” *Modern Fiction Studies* 34. 3 (1988): pp. 437-52 참조.

17) Gregg, p. 87.

위해 메이슨씨와 재혼을 하였고, 딸 앙뜨와네뜨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지만, 지배계층인 백인 사회에 편입하기 위해서 로체스터와 결혼한다. 하지만 농장주라는 지위, 즉 돈이 가져다준 안정된 생활은 잠시 뿐이었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 이들 모녀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들 모녀를 더블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바로 '광기'이다. 인간이 부정적인 언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언어에 지배되어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듯이, 아네뜨와 앙뜨와네뜨 둘 다 남편들로부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매도되어지면서 점차 광기 어린 아내의 모습으로 변모하여 간다. 두 여성이 남편들에게 단호하게 충고도 하지만, 자신이 보다 더 이성적이라고 주장하는 남편들은 아내를 원시적이고 감정에 치우치는 흑인과 같은 존재로 취급해 버린다. 계속되는 남편들의 폭력적이고 왜곡되어진 어조에 두 모녀는 광녀로 변해 간다. 그리고 광녀로 낙인찍힌 이들 모녀의 운명은 결국 감금과 알콜 중독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앙뜨와네뜨는 가부장적 폭력과 억압의 환경 속에서 어머니의 삶인 알콜 중독, 광기, 감금을 반복한다. 그러나 이 두 모녀의 광기는 가부장적 제국주의의 억압체제에 저항하는 힘이며, 냉혹한 지배체제에 균열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레잉(R. D. Laing)도 주장하듯이 '광기' 즉, 정신분열증은 살아가기 힘든 환경을 살아내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내는 삶의 전략이기 때문이다. 레잉에 의하면 인간이 실존적 총체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가치관이 인간을 남성, 여성으로 양극화시키고, 정상 혹은 광기의 인간으로 이분해 버린다. 남성이 주장하는 가치관에 맞아 들어가면 정상 그 외의 것을 추구하면 정신이상자로 낙인찍히게 된다는 것이다¹⁸⁾. 그래서 이 모녀의 광기는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모든 세력에 저항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앙뜨와네뜨는 로체스터에 의해 영국 쏘필드 저택에 구현된 억압적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

18) 윤정길, “억압받는 자의 “광기”: 진 뤼스의 『광활한 싸가소 바다』 연구” : p. 130에서 재인용. (R. D. Laing, *Self and Others* (London: Penguin, 1971) p. 79)

고,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저항의 힘을 갖게 된다.

이상 분석한 것처럼 리이스는 *Wide Sargasso Sea*에서 유색인들, 즉 타자들과 앙뜨와네뜨의 동일시를 통하여 억압하는 세력에 저항하는 타자들과의 연대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앙뜨와네뜨는 이 타자들과의 동일시를 통해 억압적 상황에서 체득된 생존력과 저항 의식을 이어받아 19세기 제국주의와 가부장제라는 지배 담론이 만들어낸 소외와 억압을 극복할 저항의 힘을 얻고 있다.

3. 타자들의 저항 양상

*Wide Sargasso Sea*에서 제국의 남성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희생되는 대표적인 인물은 아네뜨와 그녀의 딸 앙뜨와네뜨였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주목할 점은 이 두 여성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억압적 상황이 광기라는 정신 이상 증세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아네뜨와 앙뜨와네뜨가 당면하는 억압적 상황은 시간적 차이와 억압의 가해자만 다를 뿐, 억압적 상황은 어머니에게서 딸로 이어지는 순환성을 띠고 광기를 되풀이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식민지 사람들은 당시에 백인 식민주의자나 크리올의 광기는 위에서 언급한 억압적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열대지방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더구나 당시 서인도제도는 다양한 인종간의 문란한 난교가 빈번하게 일어난 공간이었으며, 이로 인한 인종적·성적 타락의 결과인 혼종은 본국인 영국 사람들에게 항상 비난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식민지 공간에서 행해지는 난교는 주로 백인 남성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들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Wide Sargasso Sea*에서도 원주민과의 난교를 통한 백인 남성들의 우월성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런 백인들의 우월성은 흑인 감시자의 아네뜨에 대한 성폭행으로 위협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흑인에 대한 백인들의 난교가 아니라 아네뜨를 간호하던 흑인 남성에 의한 성폭행은 백

인 여성을 성폭행 했더라는 면에서 중요한 사건이며 저항의 의미를 갖는다.

어머니 아네뜨가 꼴리브리 화재로 아들과 전 재산을 잃고 광분했을 때, 어머니는 의붓아버지인 메이슨씨로부터 어떤 연민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정신이상자로 몰려 버린다. 앙뜨와네뜨도 어머니 아네뜨가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신분을 얻기 위해 결혼한 것처럼, 결혼으로 남성이 제공하는 보호와 안정의 울타리를 기대하면서 로체스터가 내뱉은 “아침과 약속(...half-serious blandishment and promise.)” (54)만을 믿고 결혼하였지만, 그의 이해를 받지 못한 채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더구나 앙뜨와네뜨는 이복오빠인 다니엘이 로체스터에게 보낸 편지로 인해 어머니의 알콜 중독, 광기, 감금의 삶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자, 그를 이해시키기 위해 어머니의 타락상을 설명하게 된다. 아네뜨의 그런 운명을 알게 된 남편은 더욱 앙뜨와네뜨를 거부하는데, 사실 앙뜨와네뜨가 남편에게 설명한 어머니의 타락상은 엄청난 것이었다. 동생 피에르만 아끼고 자신을 밀쳐 내버린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접고 어머니가 감금된 시골 농장에 앙뜨와네뜨가 갔을 때, 어머니는 아름다운 드레스가 찢겨진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그 때 어머니를 감시하던 뚱뚱한 흑인 남자는 그런 어머니를 안아든 채 그녀에게 술을 마시게 하였으며, 술을 마신 어머니는 그의 팔에 안겨 키스를 받았다. 그러자 어머니는 웃으며 온순해졌다.

‘Pierre died,’ ...[Mr. Mason] bought her a house and hired a coloured man and woman to look after her.... One day I made up my mind to go to her, by myself. Before I reached her house I heard her crying. I thought I will kill anyone who is hurting my mother. I dismounted and ran quickly on to the veranda where I could look into the room. I remember the dress she was wearing—an evening dress cut very low, and she was barefooted. There was a fat black man with a glass of rum in his hand. He said, “Drink it and you will forget.”

She drank it without stopping....Then she seemed to grow tired and sat down in the rocking-chair. I saw the man lift her up out of the chair and kiss her. I saw his mouth fasten on hers and she went all soft and limp in his arms and he laughed.(80)

위 장면에서처럼 어머니를 안고 그녀의 입술에 키스하는 흑인 감시자의 행위는 백인에 대한 흑인의 폭력적인 행위이며 이는 백인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 달리 표현하면, 식민지 계급 사회에서의 백인의 악몽을 뜻한다. 즉 스스로 방어할 힘이 없는 백인 여주인이 마치 흑인 여성처럼 취급받았듯이 흑인에 의한 백인 여성의 성폭행이 폭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네뜨의 이런 타락을 통해 콜리브리 소유자에 대한 흑인의 복수 행위가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흑인에 의한 어머니의 성폭행 장면이 가져온 결과는 상상력을 초월할 정도로 충격적인 것이다. 당시 백인 남성들은 흑인 여자와의 성교 때문에 지위나 품위가 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흑인 남성과 가까이 성교를 나누기 위해 복종하는 백인 여성은 앙뜨와네뜨의 어머니뿐이었다. 아네뜨의 이러한 행동은 백인 인종 전체에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이었으며 이 결과로 태어날 유색의 피부를 지닌 자식은 백인의 순수 혈통에 크나큰 위협을 가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영국인들이 제국을 확장해가면서도 자신들의 백인성(whiteness)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원주민과 혼종이 발생하는 것을 가장 큰 죄악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당시 유럽인들은 흑인들과의 혼종을 대단히 두려워하였다. 19세기 유럽 대륙에서 흑인은 마치 악의 상징과도 같았으며 고문하는 사람, 더러운 사람,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 음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모두 흑인으로 표현되었다. 흑인은 한 인간의 좋지 않은 성향뿐만 아니라 일반적 의미에서 나쁜 것을 상징했다. 게다가 흑색은 악함, 죽음, 어둠, 그늘, 밤, 미로, 심연, 타인의 자존심이나 명성을 상하게 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와 연관되어 왔고,

거기에 비해 흰색은 선함, 생명, 천진함, 평화, 신비, 천상의 빛을 나타낸다고 생각되어 왔다¹⁹⁾.

따라서 식민지 사회에서 흑인들의 성적이고 자극적인 충동은 백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면서 그들의 사회에 무질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즉, 흑인 남성에게 의한 백인 여성의 성폭행 장면은 백인 혈통에 대한 유색인종(흑인)의 전복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네뜨와 흑인 남자의 성교 장면은 *Wide Sargasso Sea*에서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백인과 흑인의 성교를 혈통에 비유하여 묘사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인종과 성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면에서 원주민들의 성적 난잡함이 묘사되고 있듯이 중요한 점은 전복시키고자 하는 피지배자의 무의식적 욕구가 충족되어 있다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원주민에 의한 백인 여성의 성폭행은 노예제 사회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노예)의 관계를 전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한편 로체스터는 백인의 순수한 혈통이 더럽혀졌다는 인종적인 모독감과 흑인과의 성교를 행한 여자의 딸이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면서 그녀와 닮았다고 생각되어지는 하녀 아멜리(Amelie)와 동침함으로써 아내에 대한 복수를 시작한다. 그는 아멜리와 동침하기 전, 앙뜨와네뜨를 아멜리와 같은 흑인처럼 생각하며, 백인과는 비교도 안되는 열등한 존재라고 여긴다.

“She[Antoinette] raised her eyebrows and the corner of her mouth turned down in a questioning, mocking way. For a moment she looked very much like Amelie. Perhaps they are related. I thought. It's possible, it's even probable in this damned place.” (76-77)

19) 윤정길, “19세기 영국 소설에 나타난 백인 여성과 유색인종간의 이미지 동질성 연구”, 『영미문학 페미니즘』 제9권 1호 (2001): p. 91에서 재인용. (Frantz Fanon, *Black Skin White Mask* (New York: Grove Press, 1967) p. 188)

하지만, 동침 후에 로체스터는 다시 백인 지배자의 위치에서 아멜리를 그저 열등한 인종으로 간주하고 외면해 버린다. 그는 아내에 대한 복수라는 의미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마음이 평온해지기는 하였으나(I felt satisfied and peaceful....)” (84), “다시 아멜리를 애무해주고 싶지는 않았고, 그녀도 이런 마음을 알아채고(I had no wish to touch her and she knew it...)” (84) 로체스터에 대한 복수를 결심한다. 즉, 아멜리는 적절한 기회를 기다렸다가 주인의 비열한 행동을 모방하는 동시에, 그를 조롱하면서, 그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보복한다. 앙뜨와네뜨의 상속받은 유산 때문에 로체스터가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멜리는 이곳을 떠나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 때문에 그와 동침을 하지만 그와의 관계가 끝나자, 오히려 앙뜨와네뜨와 로체스터를 비웃으며 언니집으로 떠나버린다. 사실 아멜리는 이미 그랑브와(Granbrois)를 떠나 리오(Rio)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것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돈을 로체스터로부터 건네 받자 그곳의 백인인 앙뜨와네뜨와 로체스터를 비난하며 사라진다.

그리고 아멜리는 백인인 앙뜨와네뜨의 머리를 부여잡고 싸울 정도로 대담한 모습을 보여준다. 노예해방령으로 노예와 지주의 관계가 법적으로 없어지기는 했지만, 아멜리는 이전에 가난해서 흑인들로부터 멸시를 받던 앙뜨와네뜨가 메이슨씨가 준 유산으로 부유해지고, 백인 남성 로체스터와 결혼함으로써 자기보다 우위에 있게 되자 앙뜨와네뜨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그녀를 괴롭힌다. 그래서 아멜리는 앙뜨와네뜨의 뺨을 치며 흰바퀴벌레라고 조롱하고, 그녀의 머리를 부여잡고는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그녀를 물어버릴 정도로(Amelie, whose teeth were bared, seem to be trying to bite.)” (60) 괴롭히며 저항한다. 이렇게 백인에 맞서 대담하게 조롱하고 반발하는 아멜리의 복수는 바로 흑인 저항의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멜리에 대한 로체스터의 이중의식은 그의 아내 앙뜨와네뜨에 대한 감정과도 같은 것이다. 앙뜨와네뜨에게 강한 성적 매력을 느

끼면서도 흑인의 피가 흐르는 불결한 여성이라는 생각이 그에게 혐오감을 주었다. 그리고 앙뜨와네뜨도 티아처럼 흑인이 되고 싶어하면서도 학교 가는 길에서 만난 흑인 소녀에게서 느꼈던 감정처럼 흑인성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 이러한 대립적인 감정은 서인도 제도의 이주민인 백인들이 흑인들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의 감정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섹스, 추함, 동물적임, 자연의 생명력과 폭력성 등에 대한 무의식이 백인들에게도 감추어져 있다는 의미이다.

결국 흑인성이 상징하는 모든 것들은 로체스터에게 위협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저항 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로체스터는 아멜리와의 정사와 아내와의 관계에서조차 저주스런 쾌락을 즐긴다. 그리고 로체스터의 뿌리칠 수 없는 성적 남용은 식민지 노예시대에 행해지던 것과 다를 바 없노라고 앙뜨와네뜨에게 신랄하게 비난받는다.

“I thought you liked the black people so much...but that's just a lie like everything else. You like the light brown girls better, don't you? You abused the planters and made up stories about them, but you do the same thing. You send the girl away quicker, and with no money or less money, and that's all the difference.”

“Slavery was not a matter of liking or disliking.” I said, trying to speak calmly. “It was a question of justice.”

“There is no justice....My mother whom you all talk about, what justice did she have? My mother...and a black devil kissing her lips. Like you kissed mine.” (88)

위 묘사에서 나타나듯이 앙뜨와네뜨는 로체스터가 흑인여성과 관계를 가졌던 농장주들을 비난하지만 그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질책한다. 그런데도 로체스터 자신은 아멜리나 앙뜨와네뜨에게 저지른 ‘성적 남용’에 대해 죄책감이 아니라 정당함을 주장하는 뻔뻔스런 태도를 보인다. 오히려 그는 앙뜨와네뜨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와 아내에게 흐를지도 모르는 잠재된 흑인성에 위협을 느끼고 지

배자로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앙뜨와네뜨를 *Jane Eyre*에 나타듯이 버사로 만들어 버린다. 로체스터는 다니엘과 만난 이후, 특히 앙뜨와네뜨로부터 아네뜨의 비극을 들은 이후, 연민의 정을 느끼기보다 아네뜨와 흑인 간호자의 관계만을 의식하는 듯하다. 그것은 앙뜨와네뜨를 ‘버사’ 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제 로체스터는 “아내를 결코 앙뜨와네뜨라고 불러주지 않는다(He never call me Antoinette)” (68). 로체스터가 아내의 이름을 어머니의 이름인 버사로 부르는 것은 앙뜨와네뜨가 어머니 삶의 과정을 반복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더 나아가 로체스터가 지어준 버사라는 이름은 노예주가 노예에게 이름을 지어 주듯이 앙뜨와네뜨의 정체성을 말살함은 물론 그녀를 마치 흑인처럼 억압 받아 마땅한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을 뜻한다. 즉, 광기와 색정증은 항상 흑인과 연결되어져 왔으므로 이제 로체스터는 앙뜨와네뜨를 버사라고 부름으로써 완전히 흑인으로 간주해 버린다. 앙뜨와네뜨가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버사라고 개명해 부르는 것은 길먼(Sander L. Gilman)이 지적하듯이, 마치 노예주가 노예 이름을 아프리카 이름대신 쉽게 부르기 위해 바꿔버리는 것처럼 인간을 하나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²⁰. 이제 영국의 쏘필드 저택의 다락에 감금되어 있는 앙뜨와네뜨는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정체성마저 잃어버려 혼이 없는 ‘좀비’²¹와 같은 존재가 된다. 그런데 세 번째 꿈속에서 앙뜨와네뜨는 자아를 직접 대면하고 자신을 쏘필드의 유령으로 인식하게 된다.

...it seems to me that someone was following me, someone was chasing me, laughing. Sometimes I looked to the right or

20) Sander L. Gilman, *Difference and Pathology: Stereotype of Sexuality, Race and Madnes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pp. 131-49 참조.

21) 카리브해 흑인 문화에서 오베아가 불러내는 유령(좀비)의 의미는 인간을 한낱 물건으로 취급하는데서 발생하는 “자아의 박탈(dispossession of the self)” 인 소외를 상징한다. Sandra Drake, “Race and Caribbean Culture as Thematics of Liberation in Jean Rhys’ *Wide Sargasso Sea*,” *Wide Sargasso Sea* ed. Judith L. Raiskin (New York: Norton, 1999) pp. 199-200 참조.

to the left but I never looked behind me for I did not want to see that ghost of a woman who they say haunts this place.(111)

여기서 앙뜨와네뜨가 인식하는 유령은 해리슨(Nancy Harrison)의 분석처럼 버사의 모습일 수도 있고 시골집에 감금되어 흰 드레스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있던 어머니 아네뜨의 모습일 수도 있다²²⁾. 이제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그녀는 정체성을 찾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I get out of bed and go close to watch them and to wonder why I have been brought here. For what reason? There must be a reason. What it that I must do? (106)

위 인용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앙뜨와네뜨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자신의 다락에 거울이 없음을 알게 된다.

앙뜨와네뜨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내면의 또 다른 자아와의 합일을 소망하지만, 거울과 이름을 빼앗겨버려 자신의 정체성이 박탈되어 버렸음을 인식한다. 그래서 앙뜨와네뜨가 들어가는 거울이 없는 방은 “마분지 집(cardboard house)” (107)이며, 이는 마분지로 채분된 책 즉, *Jane Eyre*를 의미하고, 더 나아가 가부장적 제국주의의 억압을 상징한다.

“There is no looking-glass here and I don't know what I am like now. I remember watching myself brush my hair and how my eyes looked back at me. The girl I saw was myself yet not quite myself. Long ago when I was a child and very lonely I tried to kiss her. But the glass was between us-hard, cold and

22) Nancy Harrison, *Jean Rhys and the Novel as Indian Novel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6) p. 173.

misted over with my breath. Now they have taken everything away. What am I doing in this place and who am I ?” (107)

위의 묘사처럼 어릴 적부터 자신을 확인시켜주던 거울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그 안에 비춰지던 자신도 사라져 버리게 되자 앙뜨와네뜨는 이 집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문하며 방황한다.

그러나 위 장면에서 앙뜨와네뜨에게 유모인 크리스토폴이 “일어나서 옷을 입어. 여자들은 이 사악한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 용기가 있어야만 한단다 (Get up, girl, and dress yourself. Woman must have spunks to live in this wicked world.)”(60)라고 독려하는데 여기서 이 붉은 드레스는 바로 서인도 제도의 상징이며, 그녀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사물이기에 앙뜨와네뜨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띤다. 즉, 앙뜨와네뜨의 “붉은 드레스는 삶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red dress, that has a meaning.)” (109)라고 묘사되듯이 화재, 폭력, 피와 죽음의 상징인 이 드레스는 바로 불타고 있는 남편의 집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녀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녀를 구출해 낼 훌륭한 갑옷이기도 하다. 이제 앙뜨와네뜨는 이 붉은 드레스를 입고 쓴필드 저택에서 세 번째 꿈을 꾸게 되며 이 꿈은 그녀의 인생에 있어 전환점을 가져온다. 또한 그녀는 자아와 임무에 대해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되뇌이고, 이 자문은 버사라는 유령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을 앙뜨와네뜨에게 불어넣어 주고 있다.

앙뜨와네뜨는 이처럼 버사라는 유령 즉, 그녀의 또 다른 자아와의 직면을 유예 시킴으로서 자신을 소멸시키고, 강제로 부여된 정체성으로부터 전략적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그녀는 “마침내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게 되었다(Now at last I know why I was brought here and what I have to do.)” (112)고 말한다. 그리고 이 붉은 드레스를 입은 앙뜨와네뜨는 무서워하지 말고 뛰어내리라며 손짓하는 티아의 모습도 마지막 꿈속에서 보게 된다. 한 몸처럼 같이 놀던 티아에게 반짝이는 3페니를 빼앗긴 앙뜨와

네뜨는 그녀를 “교활한 흑인(cheating nigger)” (14)라고 불렀고 이 사건을 계기로 둘의 우정은 깨어져 버렸지만, 후에 노예폭동이 일어났을 때, 티아는 자신에게 교활한 흑인이라는 잘못된 이름을 붙여준 앙뜨와네뜨에게 돌을 던지며 저항하였다. 교활한 흑인이라는 이름을 자신에게 붙여준 앙뜨와네뜨는 친구가 아닌 제국의 백인 지배자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지막 꿈속에서 앙뜨와네뜨는 티아가 풀리부리 폭동 중에 그녀에게 돌을 던진 이유를 알게된다.

이와 같이 흑인들의 방화로 인한 풀리브리의 파괴는 자메이카의 힘을 상징하며 동시에 영국 제국주의에 대한 상징적 승리를 의미한다. 앙뜨와네뜨는 풀리브리 화재가 오랫동안 지배당하고 억압받아오던 흑인들의 분노의 표현이었음을 분명히 인식했다. 그것은 억압받는 노예들의 광기의 행동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리이스는 바로 이 풀리브리 화재와 로체스터의 쏘필드 저택의 화재를 연결시켜서 식민지 국가의 흑인과 억압당하는 여성들에게서 ‘억압당하는 타자’라는 공통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앙뜨와네뜨가 남편 로체스터에게 종속되어 감금된 모습은 바로 유색인들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그들 유색인들과 마찬가지로 주변화되고 저급화되어 억압받는 자의 서열에 앙뜨와네뜨가 속한다는 것이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앙뜨와네뜨는 불을 이용해 그녀의 저항 즉, 반란을 성취하는데 여기서 반란과 불은 앙뜨와네뜨를 자메이카의 흑인들과 다시 한번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반란과 불로 나타난 타자들의 저항은 또한 앙뜨와네뜨에게 어머니가 걸었던 인생의 행로를 반복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다. 어머니 아네뜨는 제국주의 남성의 억압에 강하게 저항하지 못해 알콜 중독과 광기, 감금의 삶을 살고, 결국 타인에 의한 죽음을 맞아야 했다. 그러나 앙뜨와네뜨는 스스로 이런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쏘필드 저택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하는 적극적인 저항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불을 통한 타자들의 저항 외에도 백인 여성 아네뜨를 성폭행하는 흑인 남성을 통해 백인 남성과 흑인 여성과의 성교를 전치시킴으로써, 식민지에서 주변화되어 억압받는 피지배자들도 거센 저항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비평에서 제외되고 그 역할이 축소되어 해석된 유색인들의 모습과 행동은 이제 저항의 맥락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리이스는 바로 미약하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이 유색인들의 힘이 앙뜨와네뜨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중시하고, 결국 이 힘은 로체스터로 대표되는 영국의 지배담론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Ⅲ. 로체스터와 저항 세력

1. 로체스터의 지배 담론

*Wide Sargasso Sea*는 흄(Peter Hulme)의 지적처럼 영국의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 농장을 세우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들의 행태에서 가부장적 가정의 예를 찾을 수 있는 작품이다¹⁾. 다시 말해서, 앙뜨와네뜨의 남편 로체스터로 대표되어지는 제국의 이데올로기와 그의 말과 행동, 글을 통해 드러나는 제국주의의 이중적 잣대와 모순, 그리고 식민지에서 행해졌던 난교, 중혼, 크리올 자식들, 서자라는 제국주의적 기만들이 적나라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처럼 리이스는 이 작품의 2부에서 화자로 등장하는 로체스터를 중심으로 영국의 문화적 우월성과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모순성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로체스터는 19세기 영국 사회를 특징짓는 제국주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형성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의 국민이면서 가부장제 사회의 일원이었던 로체스터에게 아내, 앙뜨와네뜨의 고향인 서인도제도의 자메이카는 “매우 황량하고 미개한 곳(a very wild place-not civilized)” (40)이다. 로체스터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서인도제도는 비문명화 된 ‘자연’의 세계이며, 영국은 문명화된 ‘이성’의 공간이다. 로체스터의 인식과 가치체계는 유럽 제국주의의 통치 제도의 반영물이라 할 수 있으며, 그는 이미 이런 유럽 중심적 사고 방식에 길들여진 인물이다. 그리고 서인도제도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앙뜨와네뜨를 비롯하여 티아, 크리스토폴, 다니엘, 아멜리, 뱀띠스뜨 등의 타자들과 이곳의

1) Peter Hulme, *The Locked heart: The Creole Family Romance of Wide Sargasso Sea. Colonial Discourse/Postcolonial Theory* ed. Francis Barker, Peter Hulme, and Margaret Iversen (New York: Manchester UP, 1994) p. 76.

자연경관에 대한 그의 이해는 이들과의 상호교감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서인도제도에 오기 전부터 그가 갖고 있던 식민지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때문에 로체스터는 자신이 자메이카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만 신뢰하고 “서인도제도에 또 다른 면이 있다(There is always the other side, always.)” (77)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에게 서인도제도는 단지 돈을 벌 수 있는 미개척지인 황량한 장소이며, 이곳의 흑인들과 백인 크리올들은 비인간적이고 타락했으며 낯선 존재에 불과했다.

게다가 더욱 로체스터를 괴롭히는 것은 영국의 장자상속제도 때문에 차남인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유산도 물려받지 못하고, 돈 때문에 “아버지의 일방적인 계획과 바람에 따라(...according to your plans and wishes.)” (45) 결혼하여 이곳 자메이카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이다²⁾. 결혼을 강요당한 로체스터는 “내가 나의 영혼을 팔았거나 아버지가 그걸 파셨거나 했지요. 그리고 그 더러운 거래 뒤는 어떤가요?(I have sold my soul or you have sold it, and after such a bad bargain?)” (41)라며 자메이카에서 아버지에게 보낸 첫 편지에 원망을 드러내듯이 자신의 결혼에 대해 분노를 터뜨린다.

로체스터가 크리올 여성 앙뜨와네뜨와 결혼하여 서인도제도에 오게 됨으로 해서 *Wide Sargasso Sea*에서는 영국과 자메이카, 그리고 지배적인 그룹과 침묵을 강요당한 그룹이라는 대조적 현실이 다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체스터와 앙뜨와네뜨가 각기 상징하는 문화인 영국/서인도제도, 백인/흑인, 힘/무기력, 제국/식민지, 미움/사랑, 소유/찬탈의 대립구조가 증시되고 있다³⁾.

그러므로 로체스터는 서인도제도의 미개하고 비인간적인 크리올과 문명화된

2) 지참금을 가진 크리올 상속녀인 앙뜨와네뜨가 궁핍하지만 사회적 지위를 지닌 영국의 한 가문의 작은 아들과 결혼한 것은 ‘거래’라는 개념의 결혼모델이라 할 수 있다. Kenneth Ramchand, “Introduction.” *Tales of the Wide Caribbean* (London: Heinemann, 1985) pp. 1-21 참조.

3) Sue Spaul, “Gynocriticism, Jean Rhys’ *Wide Sargasso Sea*,” Sara Mills, Lynne Pearce, Sue Spaul, and Elaine Millard eds. (Charlottesville: UP of Virginia, 1989) p. 94 참조.

세계에서 온 자신과의 차이점 때문에 앙뜨와네뜨를 사랑하는 감정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아. 그녀를 갈망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야(I did not love her. I was thirsty for her, but that is not love.)” (55)라고 하는 로체스터의 생각은 바로 자신과 아내가 속하고자 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들의 현실에 대한 인식차는 바로 ‘영국’ 과 ‘서인도제도’ 에 대한 두 인물의 견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앙뜨와네뜨는 서인도제도에 대해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도 여기가 좋아요. 만약 이 섬이 사람이라면 그 누구보다 좋아요(I love it more than anywhere in the world. As if it were a person. More than a person.)” (53)라고 말하지만 로체스터에게 이곳은 “황량한 곳일 뿐만 아니라 위협적인(Not only wild but menacing.)” (41) 장소일 뿐이다. 그리고 영국은 그녀에게 “암울하고 냉기로 가득 찬 꿈과 같고 그 꿈은 깨어나 떨쳐버리고 싶은 것(...London is like a cold dark dream sometimes. I want to wake up.)” (47)이지만 로체스터에게는 항상 돌아가고 싶은 고향이다. 그러나 그녀에게 영국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려고 하는 그의 지배적인 입장은 결코 수용되지 않으며, 서인도제도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비롯된 그녀의 확고부동한 의지는 꺾을 수가 없다.

She often questioned me about England and listened attentively to my answer.... It would be only a mistake, a misfortune, a wrong path taken, her fixed ideas would never change.

Nothing that I told her influenced her at all. (56)

위 인용에 나타나듯이 로체스터는 작품 전반에 걸쳐 앙뜨와네뜨에게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지만,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서인도제도를 포기하고 영국으로 떠나게 된다. 이를테면 로체스터 자신이 앙뜨와네뜨

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자메이카로부터 밀려나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다.

결국 로체스터가 앙뜨와네뜨에게 “당신은 영국에 대해 전혀 이해를 못한다 (You don't understand at all.)” (50)고 말하듯이 자메이카에서 원주민들과 동화하고 있는 그녀와 서인도제도의 식민지 문화를 영국식 잣대로 해석하려 한다. 영국에 대한 앙뜨와네뜨의 거부 때문에 로체스터는 그녀를 무시하고 흑인으로 취급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유럽의 역사와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되어진 남편의 정체성은 크리올 여성인 앙뜨와네뜨를 해체시킴으로써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앙뜨와네뜨를 해체시키기 위해 로체스터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타자화’이다. 여기서 타자화라는 것은 파농(Frantz Fanon)의 주장처럼⁴⁾ 흑인이 흑인과 함께 있을 때에는 자신의 존재를 [인종적] 타자들을 통해 체험할 필요가 없지만, 식민지 사회에서는 흑인은 백인과의 관계 속에서 흑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로체스터도 백인들의 지배 담론에 의해 생성된 타자화를 앙뜨와네뜨에게 적용시키고 있는데 친척들 사이에 앉아 있는 아내를 보며 “나의 아내는 백인들과 함께 있기는 하지만 그녀가 흑인과 백인 누구를 닮았는지 알아낼 수가 없다(...my bride in white but I hardly remember what she looked like.)” (46)고 생각하듯이 자신은 지배의 중심에 놓고 자신 외의 모든 것을 주변에 위치시켜 타자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서인도제도에서 로체스터는 타자로부터의 위협에 시달리게 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위치마저 불안정하다고 느끼게 된다.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도취된 식민주의의 지배자이며, 가정의 강력한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려는 로체스터에게 다니엘의 편지가 도착하고 그와 만나게 됨으로써 로체스터의 권위는 순간 무력해진다. 앙뜨와네뜨의 이복오빠임을 자처하는 다니엘이 보낸 편지 내용은 앙뜨와네뜨의 집안인 “코즈웨이(家)에 광기가 흐르고 있다(There is

4) Frantz Fanon, *Black Skin, White Masks* (New York: Grove Press, 1967) p. 80 참조.

madness in that family.)” (57)는 것이었다. 로체스터는 “나는 이를 예상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길 기다리고 있었다(It was as if I'd expected it, been waiting for it.)” (59)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편지를 읽고 난 후, 아내에 대한 증오를 감추지 못한다.

로체스터는 자신을 속인 아내에게 어떻게 복수할지 생각하며 그랑브와 집 근처의 숲을 배회하다 그곳에서 황량한 나무들과 폐허가 된 집, 그리고 자신을 보고 놀라 울며 도망치는 한 여자아이를 보게 된다. 그리고 폐허가 된 집 주변에서 유령의 존재를 느끼며 놀라 허둥댄다. 이윽고 로체스터는 그를 찾아 나선 뱀띠스뜨(Baptiste)에게 “이 숲에 유령이 있지. 거기에 좀비가 있지, 그렇지?(Is there a ghost, a zombie there?)” (63)라고 물어보지만 뱀띠스뜨는 그저 모른다고 냉랭하게 대답한다. 그러나 분명 로체스터는 이곳에서 유령을 보았고, 이 황량한 “숲이 위협적이고(The trees were threatening....)” (90), 서인도제도에 대해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 어떤 것도 나를 편안하게 해주지 않았다(There was nothing I knew, nothing to comfort me.)” (90)라고 위협감을 느낀다.

로체스터는 뱀띠스뜨에게 단지 그 폐허가 된 집의 주인이 페르 릴리에브(Pere Lillievre)라는 교구 목사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지만, 실제 이 목사는 페르 라바(Pere Labat)라고 하는 사람으로 원주민들의 입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의 주인공이다. 그는 주술 즉, 오베아를 행하는 주술사로 이곳 사람들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두려운 존재이다. 로체스터가 숲 속에서 본 불빛과 그가 느낀 공포는 바로 서인도제도가 지닌 마력 때문이었으며, 이 마력이 이곳을 지배하려는 로체스터에게 대항하여 위협적인 것으로 다가옴은 당연하다.

다시 말해, 숲에서 길을 잃게 되는 이 에피소드에서 서인도제도의 공간은 로체스터에게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는 원시적인 자연의 생명력과 원주민, 흑인의 의식 속에 녹아있는 마술, 마력의 신비로움을 드러내준다. 문명화된 세계의 제국

주의적 의식에 젖어있는 로체스터는 발부리에 걸린 돌맹이를 이전에 프랑스가 이 섬에 건설한 포장된 도로의 흔적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섬의 원주민 뱀띠스뜨는 사실여부를 떠나 서구인의 근거 없는 추론을 인정하지 않으며, 백인 주인 로체스터에게 냉랭한 태도로 대한다. 섬의 숲은 유구한 시간 동안 형성된 신비로운 생명력 자체이며 거대한 자연의 일부이다. 때문에 한낱 도로의 존재 유무는 원주민에게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로체스터가 나무들로 무성한 숲에서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헤매는 것은 숲으로 형상화된 서인도제도의 자연의 힘 앞에서 서구 문명의 무기력함과 공허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바로 뱀띠스뜨⁵⁾의 냉랭한 시선이다. 뱀띠스뜨는 로체스터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뱀띠스뜨에게 로체스터는 “마치 숲 속에서 보았던 야만적이고 험난하는 것 같은 얼굴 위에 하인의 상냥한 마스크를 쓴 것(...as if he'd put his service mask on the savage reproachful face I had seen.)” (63) 같아 보인다. 로체스터를 바라보는 뱀띠스뜨의 표정과 태도처럼 피지배자는 지배자의 시선에 아예 반응조차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피지배자의 시선과 거부하는 반응하는 것 못지 않게 지배자의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호미 바바(Homi Bhabha)도 주장하듯이 이를 풀어 설명하면, 주체(지배자)는 자신의 말이 즉시 전달되고, 타자에 의해 자신의 권위와 우선권이 확립되고 자신이 입안한 기획이 완성되며, 자신의 지시사항과 심지어는 자신의 분열된 시선까지도 타자가 반복해주기를 요구한다⁶⁾. 그러나 뱀띠스뜨의 이러한 시선의 저항은 지배자가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기 위해 타자에게 부과하는 종속적 위치를 피지배자가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할

5) 뱀띠스뜨(Baptiste)라는 이름은 서인도제도에 노예해방이 선포되는 계기를 가져온 1831년 자메이카의 반란(Bapatist War) 명칭에서 따온 것으로 반란과 저항의 뜻을 지닌다.

6) Homi Bhabha, “Sly Civility,”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1994) p. 98 참조.

수 있다.

서인도 제도가 주는 공포와 뱀피스트의 냉랭한 시선을 경험한 로체스터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식민지에서 지배자로서의 권위를 되찾기를 기대하면서 전에 읽은 적이 있었던 『서인도제도의 찬란한 금관(*The Glittering Coronet of Isles*)』을 펼쳐본다. 바바의 지적처럼 책을 찾아 펼쳐드는 이 장면은 19세기 식민지 소설에서부터 계속 반복되어지는 장면이며, 이는 바로 ‘[제국의] 권위를 확인시켜주는 순간’이다⁷⁾. 이렇게 서인도제도가 주는 위협적인 경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만, 다시 한번 로체스터는 그 황량한 집 근처 오렌지 나무 밑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앙뜨와네뜨가 크리스토퍼에게서 얻어 온 마력이 담긴 사랑의 약을 탄 음료를 로체스터가 마셨기 때문이며 그는 “자신이 마력에 걸려들었다(...I have been poisoned.)”(83)고 알아차린다. 이처럼 로체스터는 자신의 지배이데올로기 뿐만 아니라 정체성까지도 위협하는 서인도제도의 오베아 때문에 늘 당황하게 된다.

그러나 로체스터의 욕구는 식민지에서 지배 이데올로기와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유럽인들의 욕구처럼 아내의 이름을 앙뜨와네뜨에서 버사라고 바꿔부름으로써 실천되어간다. 앙뜨와네뜨는 “버사는 내 이름이 아니에요. 당신은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군요. 그러나 나는 그것이 오베아나 마찬가지로 아는 것을 알아요(Bertha is not my name. You are trying to make me into someone else, calling me by another name. I know, that's Obeah too.)”(88)라고 항변하듯이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노예시장에서 사고 파는 흑인 노예처럼 사물로 인식하고, 부르기 편한 대로 이름마저 버사라고 바꿔부름으로써 어머니 아네뜨처럼 광녀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것이다. 그래서 로체스터는 크리스토퍼가 행하는 마력에 앙뜨와네뜨가 의존하려는 것처럼 유럽의 지배적 우월성이라는 오베아에

7) Homi Bhabha, "Signs Taken for Wonders: Questions of Ambivalence and Authority under a Tree Outside Delhi, May 1817." *"Race," Writing and Difference* ed. Henry Louis Gates J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 p. 166.

걸려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고유한 지배적 특권을 되찾기 위해서 로체스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앙뜨와네뜨를 그녀의 고향 자메이카로부터 분리시켜 모국인 영국으로 데리고 돌아가는 것이다. 그에게는 차남으로서 재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지탱하여줄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앙뜨와네뜨와의 결혼을 통해 “3만 파운드가 아무런 의심이나 조건 없이 로체스터에게 건네어졌기(The thirty thousand pounds have been paid to me without question or condition.)” (41) 때문에 재산을 갖게 된 로체스터는 다시 지배적인 위치에 설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제 문제에 대해 특히 제 결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수록 더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물론 아버님께도 그 편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the less you talk to any one about my affair, especially my marriage the better. this is in your interest as well as mine.)” (97)라고 앙뜨와네뜨와의 결혼을 타인에게 언급하지 않도록 부탁하면서 제인과의 중혼의 가능성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앙뜨와네뜨를 영국 저택의 다락에 유폐시킬 계획을 세운다.

이런 그의 결심은 “I”라는 대명사로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I”는 계급적인 상징으로서 한 문단 속에서 14번이나 나타나고 있는 반면, 그의 아내인 앙뜨와네뜨는 그저 막대기처럼 묘사되고 있을 뿐이다.

He scowled at me then, I thought. I scowled too as I re-read the letter I had Written to the lawyer. However much I paid Jamaica servants I would never buy discretion. I'd be gossiped about, sung about....Wherever I went I would be talk about, some more rum and, drinking. I drew a house surrounded by trees. A large house, I divided the third floor into rooms and in one room I drew a standing woman—a child's scribble, a dot for a head. a larger one for the body, a

triangle for a skirt, slanting lines for arms and feet. But it was an English house.

English trees. I wondered if I ever should see English again. (98)

이렇듯 로체스터가 “I”를 자주 언급하는 것은 서인도제도에서 자꾸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지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체성 회복을 통해 자신의 지배 담론을 행할 수 있는 주체로 다시 서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그레그(Veronica Marie Gregg)도 로체스터가 ‘I’를 사용하는 것은 ‘적극적인 자아 탐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⁸⁾.

그러나 자신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렇게 애를 써봐도 로체스터에게 앙뜨와네뜨의 노래와 크리스토포의 언어인 “저속한 빠뜨와(the debased French Patois)” (39)는 위협적이다. 아내의 노래와 빠뜨와는 로체스터의 ‘지식’을 쓸모 없게 만들뿐만 아니라, 그가 서인도제도에서 체험한 것들을 지배자적 위치에서가 아닌 타자적 위치에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또한 그는 마법이나 오베아를 행할 줄 아는 크리스토포의 자신의 지배적 힘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인물임을 분명히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크리스토포를 내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영국의 지배 담론에 근거를 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녀의 도전과 저항을 효과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해 법에 근거하여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밝힌다. “그렇다면 나는 경찰을 부를 거야. 당신에게 경고하고 있어. 이런 하찮아 보이는 섬에도 법과 질서는 존재한다구(Then I will have the police up, I warn you. There must be some law and order even in this God-forsaken island.)” (96)라고 말하는 순간만이 로체스터가 자신의 목소리에 힘을 주어 크리스토포에게 대항할 수 있는 순간이다. 식민지 지배자인 로체스터는 타자인 크리스토포를 삭제시켜 버리거나 불구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법의 영역이 그의 편에 있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고 있다. 당시 백

8) Veronica Marie Gregg, *Jean Rhys's Historical Imagination: Reading and Writing the Creole* (Chapel Hill & Lond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5) p. 52 참조.

인 지배자들은 오베아가 흑인들이나 유색인들의 결속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종교로 간주하여 법적인 구속을 하였다. 크리스토퍼처럼 주술을 행한 일이 발각 되면 12개월간의 징역과 2년간의 집행유예 그리고 벌금을 내야하는 엄격한 법이 집행되고 있었으므로, 로체스터는 크리스토퍼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그녀를 앙뜨와네뜨 곁에서 쫓아버린다. 그리고 앙뜨와네뜨의 재산과 자유를 제한하고 빼앗는 데에도 법에 근거한 합법적 절차를 따르는 로체스터의 모습은 노예해방령 이후의 자메이카를 더욱 교묘하게 통치하려는 식민주의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로체스터가 법을 내세워 자신의 지배 담론을 공고히 하려는 반면, 크리스토퍼는 자메이카에서 “법의 이름으로(Letter of Law)” (15) 실시되고 있는 새로운 노예제도와 원주민에 대한 억압적 착취와 지배에 분노를 터뜨려 보지만, 원주민의 예속과 식민지 공간인 서인도제도에 대한 착취는 영속적인 것임을 잘 알고 있다.

No more slavery! She[Christophine] had to laugh! ‘These new ones have Letter of Law, same thing. They got magistrate. They got fire. They got jail house and chain gang. They got tread machine to mash up people’s feet. New ones worse than old ones—more cunning, that’s all.’(15)

위의 인용처럼 ‘재판’ 과 ‘감옥’ 제도는 로체스터가 말하는 ‘법’ 을 상징하고, 제국의 권력을 실현하는 주요한 구성요소로 등장한다. 재판관, 경찰과 감옥체계는 서인도제도에서 제국주의의 지배와 권력을 보증하고, 문명화와 이성이라는 미명 속에 그 억압성을 은폐하는 것들이다. 이처럼 자메이카는 제국주의의 지배와 권력이라는 교묘한 방법이 실현되는 식민지적 공간이 되고 있다.

이제 법의 논리를 통해 크리스토퍼이라는 타자를 텍스트로부터 축출시켜버린 로체스터는 아내인 버사를 데리고 가능한 빨리 자메이카를 떠나 자신의 모국인 영국으로 가려한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앙뜨와네뜨가 보여주는 타자성과 주변성

이 섬의 비밀과 생명력 등에 결부되어 있어서 로체스터가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이런 '특권적인 영역'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당한 데서 두려움과 증오를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앙뜨와네뜨를 광기가 있는 여자로 몰아가면서 복수를 하게 되고, 그 결과 로체스터는 그녀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신의 무능력을 광기로 은폐시킨다. 결국 앙뜨와네뜨의 광기는 자메이카 섬에서의 자신의 무능력과 무기력함을 은폐하고, 아내의 정체성을 부인하려는 로체스터가 의도적으로 기획한 가부장적 전략의 산물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로체스터가 기획한 앙뜨와네뜨의 광기는 그녀의 힘이 미칠 수 없는 영국 쏘필드 저택에서 절정에 달하며, 그녀는 주체가 되지 못한 채 정체성을 상실한 무기력한 타자로 감금된다.

그러나 여기서 로체스터가 앙뜨와네뜨를 감금하는 행위는 지금까지 그가 자메이카의 위협으로부터 대처하던 소극적인 태도와는 달리 적극성을 띤 공격적인 태도라고 지적할 수 있다. 로체스터의 이런 '적극적인 공격'도 앙뜨와네뜨의 저항의 힘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킬 수는 있었지만, 쏘 필드 저택에 불을 지르는 그녀 내부에 잠재된 전복성을 없애지는 못했다.

결국 주인공 앙뜨와네뜨는 앞장에서 분석했듯이 방화를 통해 로체스터가 만들어내는 차가운 증오심을 파괴하고 억압의 공간을 태워버림으로써, 그녀를 고무시키는 저항의 열기를 얻는다. 그러므로 앙뜨와네뜨의 이러한 저항은 로체스터의 제국주의 담론을 서인도제도에 유폐시키고, 앙뜨와네뜨와 동일시되는 타자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로체스터의 의지를 불태워버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다니엘: 모방을 통한 저항

*Wide Sargasso Sea*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다양한 화자의 목소리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리이스는 이야기의 소재, 목소리, 시점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새롭고 독특한 형식을 만들어 내고 있다. 즉, 다양한 목소리의 1인칭 화자들을 통해 로체스터의 이야기를 방해거나 진행시켜 나감으로써 리이스의 이전 작품에서 볼 수 없는 구성을 보여준다. *Wide Sargasso Sea*에서 이와 같은 복잡한 구성과 다양한 화자들이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앙뜨와네뜨의 인생을 살펴보는 것 외에 앙뜨와네뜨와 로체스터를 번갈아 서술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이 두 인물로 대표되는 제국과 식민지의 양면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특히 2부에서 화자인 로체스터의 서술 진행을 방해하는 다른 화자들은 로체스터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많은 모순들을 폭로해주고 있으며, 이 화자들의 목소리 속에서 저항의 힘을 감지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목소리 중의 하나가 바로 자신을 다니엘 코즈웨이(Daniel Cosway)라고 부르는 앙뜨와네뜨의 이복 오빠이다. 로체스터가 이 작품에서 이름을 갖지 못하고 단지 'he'라는 대명사로 지칭되는 것과 달리, 다니엘은 코즈웨이라는 성 외에도 보이드(Boyd)와 에사오(Esau)라는 여러 개의 성을 사용함으로써 불분명한 정체성을 지닌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물론 앙뜨와네뜨도 “그가 코즈웨이라는 성을 사용할 권리가 없으며, 그에게 이름이 있다면 그건 다니엘 보이드(He has no right to that name[Cosway]...His real name, if he has one, is Daniel Boyd.)” (77)라고 말하며 다니엘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다니엘은 작품 속에서 크리올을 아주 싫어하는 몰라토로 묘사되어지는데, 이러한 몰라토들은 리이스의 다른 작품 *Smile Please, Voyage in the Dark*, 그리고 “Again the Antilles”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 유형이다. 코즈웨이, 보이드, 에사오⁹⁾처럼 다니엘의 성(surname)이 여러 개라는 점은 혈통의 모호성을 암시하듯이 식민지 사회에서 크리올들이 혼종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하

9) 에사오라는 이름은 '상속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창세기 27장에서 에사오는 아버지 이사악에게 사냥한 동물을 바치고 그로부터 은총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동생 야곱과 어머니의 간교로 은총을 빼앗긴다. 에사오라는 이름은 성서에서 비유된 것으로, 장자상속권의 상실과 아버지의 저주를 내포하고 있다. Thomas Sue, *The Worlding of Jean Rhys* (London: Greenwood Press, 1999) p. 174 참조.

고, 백인처럼 하나의 성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작품 속에서 다니엘 코즈웨이가 '서자' 라는 사실이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서자는 흔히 플라토나 크리올임을 암시하는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서인도제도의 백인 농장제도에 대해 언급할 때 자주 거론된다. 그래서 서자가 많이 태어난다는 사실은 인종적 오염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상속권 문제 즉, 경제적 위협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식민지에서의 혼종은 계속 되었고 결국 이것이 백인들에게 위협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극복해보려고 하는 법적 제재조치도 등장한다. 다니엘처럼 흑인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식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금하는 법이 1760년에 제정되었으며, 결국 이 법은 영국인과 흑인 모두에게 좋은 것이며, 식민지에 있는 흑인 여성과의 접촉을 가능한 삼가고, 순수한 백인의 혈통을 보존하는 것이 좋은 시민이 해야 할 의무라고 까지 규정한다. 이런 법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종족과의 결혼 혹은 성관계로 인해 엄청난 숫자의 혼혈아들이 태어났으며, 백인과 흑인으로 구성되어야 할 서인도제도의 농장이 혼혈인들로 바뀌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¹⁰⁾.

*Wide Sargasso Sea*에서도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묘사되고 있다. 아네뜨와 메이슨씨의 결혼 후, 익명의 백인 여성의 목소리는 아버지 코즈웨이씨의 사망 원인이 알콜 중독과 흑인 여성들과의 난교 때문이라고 아버지의 부도덕한 행위를 귀찮게 준다. 동시에 이 익명의 여성은 오랫동안 묵인되고 당연히 받아들여지던 관습의 또 다른 희생양이 앙뜨와네뜨라는 사실도 암시해준다.

Emancipation troubles killed old Cosway? Nonsense—the estate was going downhill for years before that. He drank himself to death.... And all those women! She never did anything to stop him—she encouraged him. Presents and smiles for the bastards every Christmas. Old customs? Some old customs are better dead and buried.(17)

10) Lowell Joseph Ragatz, *The Fall of the Planter Class in the British Caribbean, 1763-1833: A Study in Social and Economic History* (New York: Century, 1928) p. 5 참조.

다니엘도 백인 아버지 코즈웨이씨와 흑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플라토이며 서인도제도라는 지역적인 위치까지 고려한다면 크리올로서 흑인과 백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백인을 경멸하고 원망하면서도 백인의 흉내를 내는 그야말로 자신의 피부색처럼 혼합된 인종적 감정을 지닌 등장인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흑인들은 가난하여 방 하나에서 잠자고, 손님을 맞고, 취사까지 한다. 반면 “다니엘에게는 백인들의 것을 닮은 집도 있고 거기에는 앉아서 담소를 나눌 방까지 따로 있다(...he had house like white people, with one room only for sitting in.)” (72)는 사실과 그의 집 거실에 걸려있는 “도금된 시계(gilt clock)” (75)는 백인의 것을 흉내내고 싶은 다니엘의 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들이다. 한때 바베이도스(Barbados)에서 설교자였던 다니엘은 백인들이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방법 중 하나로 기독교 전파를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처럼, 지배계급인 백인을 경멸하면서도 백인들처럼 지식인이 되고 싶은 마음에 복음 전파를 명분으로 기독교를 이용하는 인물이다.

한편 다니엘이 로체스터에게 보낸 편지와 로체스터와의 대화를 통해 드러나는 다니엘의 이야기는 서인도제도의 노예와 그 사회 관계를 살펴보는데 큰 도움을 준다. 특히 노예시대에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한 유럽인들의 전형적 인식은 다니엘이 로체스터를 대하는 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에 대해 르위스(Gordon Lewis)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The slave recognized the psychological need of the stereotype in the master mentality and cleverly exploited it for his own ends To deliberately feed the master's expectations ... to delude the master into a false sense of security; to adopt an air of exaggerated deference before the white person, really a disguised form of insolence; above all, to disguise one's own true feelings, since no one, least of all whites, could be trusted: all became part of the game, of putting on ole massa.¹¹⁾

위 인용에 나타나듯이, 흑인들은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주인을 기만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을 만큼 대담하다. 다니엘도 크리올들의 타락상에 대해 백인인 로체스터가 수용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를 조롱할 뿐만 아니라, 서인도제도에서의 백인들의 도덕적 타락을 오히려 노예나 흑인, 물라토 여성의 육체에 적용시켜서 영국인들의 우월성을 부추긴다. 백인에 대한 충성을 가장한 다니엘의 첫 번째 편지는 백인들의 우월성을 부추기는 동시에, 백인의 나르시시즘적인 믿음에 호소하고자 쓴 편지이다. 울프(Virginia Woolf)의 지적처럼 나르시시즘은 바로 제국주의의 산물로서, 이것은 특권 계급인 영국인들의 교육에서 기인한 제국주의적 욕구 때문에 생겨난 것이며 지배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 지배가 생산해 내는 피할 수 없는 비극을 의미한다¹²⁾.

다니엘은 로체스터가 차남으로서 당시 가부장제 사회의 장자상속권 때문에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된 것에 대해 자신도 차남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그에게 동병상련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다니엘은 스스로 자신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코즈웨이씨가 장남 알렉산더(Alexander)를 아끼는 지나친 애착을 통렬하게 비난한다. 여기서 차남이라고 하는 모티프와 서인도제도 농장에 대한 비난은 이 두 인물이 가진 공통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다니엘이 로체스터의 더블이 될 수 있다고 켄드릭(Robert Kendrick)은 주장한다¹³⁾.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로체스터의 동료애를 이끌어내고 그를 적당히 설득시키기 위해 다니엘이 사용하는 편지글의 어조나 말투가 영국인인 로체스터의 그것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서인도제도라는 타락한 세계

11) Gordon K. Lewis, *Main Currents in Caribbean Thought: The Historical Evolution of Caribbean society in Its Ideological Aspects, 1492-1900* (Baltimore: John Hopkins UP, 1983) p. 181.

12) Virginia Woolf, *A Room of One's Own and Three Guineas* (London: Hogarth Press, 1984) p. 38 참조.

13) Robert Kendrick, "Edward Rochester and the Margins of Masculinity in *Jane Eyre* and *Wide Sargasso Sea*," *Papers on Language & Literature* 30 (1994): p. 242 참조.

에서 겪는 고통과 기독교인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데서 오는 자학 속에서 로체스터는 “신의 권능과 지혜를 믿고(I believe in the power and wisdom of my creator.)” (76) 항상 신을 염원하는 존재로 묘사되는데 이런 로체스터를 다니엘이 모방하고 있다. 다니엘은 로체스터에게 앙뜨와네뜨의 가족사를 알려주는 일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자기 의무이고(my Christian duty)” (58), “주께서 나의 어깨에 짐을 지워주셨음에 틀림없는 일이며, 선생에게 진실을 알려 주어야만 할 사람이 바로 나(...the Lord put the thing on my shoulders and that it is I must speak the truth to you.)(58)” 라고 말한다. 그리고 로체스터에게 편지를 쓰게 된 일은 “하느님의 도움으로(with God’s help)” (58)행해진 것이라며 그를 설득시키려 한다. 이렇게 로체스터를 모방하는 다니엘의 언어와 행동은 식민지 엘리트 흑인들과 유색인들이 백인 주인을 모방해서 주인의 시각으로 사물을 인지하는 방법과 같은 것이라고 브래스웨이트(Edward Braithwaite)는 주장한다. 즉, 흑인들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거부하고 주인을 모방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¹⁴⁾. 더 나아가 호미 바바는 식민 담론이 피식민 주체에게 갖는 힘의 역학은 일방적이 아니라 ‘양가적’인 것으로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피지배자가 식민권력에 의해 제국주의에 동화되는 가운데 지배자를 모방하게 됨으로써, 차이를 지닌 존재로서 ‘거의 같지만 똑같지 않은’ 닳은꼴로서의 피지배자가 되어 식민통치에 필요한 인적자원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피지배자의 양가적인 특성이 식민 권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차별성과 위계질서를 흔들어놓음으로써 식민권력을 와해시키는 양면성을 갖게 된다. 그 결과 제국의 이데올로기가 지배 계급이 기대한 것만큼 확일적으로 행사되지 않으며 피식민주체는 저항의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¹⁵⁾. 그러므로 다니엘의 이러한 모방은 차별 당하는 자의

14) Kamau Braithwaite, *Contradictory Omens: Cultural Diversity and Integration in the Caribbean* (Kingston, Jamaica: University of the West Indies, 1974) p. 266 참조.

15) 호미 바바에 따르면, 모방은 폭력에 의한 지배정책과는 달리 정서적, 이데올로기적 영역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식민 권력과 지식의 가장 교묘하고 효과적인 전략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모방에 의한 피지배자의 ‘불완전한 동일성’은 마치 일그러지는 거울처럼 지배자의 정체를

시선이 권력의 주체에게로 되돌아가게 됨으로써 지배의 과정을 역전시키는 전략의 한 형태이며¹⁶⁾, 이러한 모방을 통해 다니엘은 플라토라고 하는 인종적 특징이 내포하는 양가성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편, 다니엘의 편지가 도착하고, 그를 만난 후에 로체스터는 아내에게 복수를 자행하게 된다. 더구나 로체스터는 다니엘의 집 밖에서 보게 된 “얼룩 염소(a black and white goat)” (76) 때문에 자신의 아내가 불결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염소를 ‘색욕’의 상징이라고 보는 로체스터는 얼룩무늬를 가진 이 동물이 혼혈인 아내, 아멜리, 다니엘 그리고 앙뜨와네뜨의 사촌 산디(Sandi)와 같다고 생각한다. “길고, 슬프고, 어두운, 이방인들의 눈, 순수한 영국의 크리올들도 결국은 영국인도 유럽인도 아니다(Long, sad, dark alien eyes. Creole of pure English descent she may be, but they are not english or European either.)” (39). “아마도 그들은 친척이겠지. 이런 저주받은 장소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하겠지(Perhaps they are related, I thought. It’s possible, it’s even probable in this damned place.)” (77)라는 그의 의심은 후에 *Jane Eyre*에서 제인이 버사를 묘사하는 장면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변색된 얼굴이었어요. 야만인의 얼굴이었다고요....몸뚱이가 검게 팽창된 듯 보이던 그 두려운 모습도... [이 유령은] 보라색이었답니다. 입술은 부어오르고 검은 색이었어요, 검은 눈썹이 충혈 된 눈 위로 치켜올려져 있었어요(It was a discolored face— it was a savage face...the fearful blackened inflation of the liniments. This, sir, was purple: the lips were swelled and dark; the brow furrowed; the black eyebrows widely raised over the bloodshot eyes.)”¹⁷⁾ 라는 묘사는 흔히 19세기 백인들이

성을 분열시키게 되는데 이는 지배자의 모방 전략을 피지배자가 역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Homi Bhabha, “The Other Question: Difference, Discrimination, and the Discourse of Colonialism,” *Literature, Politics, and Theory: Papers from the Essex Conference 1976-84* (London: Methane, 1986) pp. 163-84 참조.

16) Bhabha, “Sly Civility,” *The Location of Culture*, p. 98.

17) Charlotte Brontë, *Jane Eyre* (New York and London: Norton & Company, Inc, 1987) p. 249.

묘사하던 흑인들의 모습이었다. 검은 얼굴과 대조되어 흰 눈동자를 굴리는 흑인의 모습은 백인의 모습과 대조되어 강조되어 왔다.

그러므로 앙뜨와네뜨를 향한 다니엘의 태도에서 백인과 흑인, 서인도제도와 영국이라는 경계는 옹호되어지기도 하고 불확실해지기도 한다. 그리고 영국인의 하위 주체로서 다니엘은 자아와 타자에 근접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한다. 즉, 다니엘은 백인 자아를 지향하고자 하지만 동시에 백인을 경멸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아 이런 양가적인 감정이 항상 존재하는 플라토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니엘은 백인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의 실체라고 할 수 있으며 그의 '모방'을 통해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식민 권력과 지식을 와해시킬 수 있는 저항을 하였다. 그리고 다니엘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집 앞에 얼룩 염소를 묶어놓아 그것을 바라보는 로체스터에게 혼종을 연상시켜 크리올인 아내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위험한 인물이다.



3. 크리스토피: 오베아를 통한 저항

리이스는 로체스터에 대한 저항의 어조를 품고 있는 또 다른 인물로 앙뜨와네뜨의 흑인 유모 크리스토피를 등장시키고 있다. 아네뜨의 결혼 선물인 유모 크리스토피는 성욕이 과다한 매춘부라던가 매우 순종적인 흑인 유모와는 거리가 먼 여성이다. 리이스는 크리스토피를 부각시키기 위해 그녀에게 상징적인 이름을 붙여주었다. 우선 이 이름은 카리브해 머룬족 영웅 조셉 차또예(Joseph Chatoye)의 이름을 따서 차또예(chatoye)라 불리기도 하는 성장력이 좋은 과일 크리스토피(christophine)에서 따온 것이며, 그녀의 성인 뒤브와(Duboi)는 문자 그대로 '숲속의(of the wood)'라는 뜻으로 자메이카와 도미니카에서 유명세를 탔던 열대 숲 속에 사는 머룬 족의 저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¹⁸⁾.

크리스토피은 결혼과 함께 모든 재산이 남편에게 넘겨져 버려 한푼도 없는 앙뜨와네뜨에게 “내 돈은 내가 챙긴다구. 나는 한푼도 쓸모 없는 남자에게 주지 않거든(I keep my money. I don't give it to no worthless man.)”(66)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그녀는 남편이 없이도 경제적인 능력을 충분히 지닌 여성이다. 그리고 그녀는 “스페인 타운에서 일하는 자기 아들조차도 만나는 일이 없을 정도로(She never saw her son worked in Spanish Town.)”(12) 자식에게 얽매이지 않는다. 흔히 흑인 여성하면 모성을 강조하는 ‘흑인 유모’를 떠올리게 되지만, 크리스토피은 ‘아이’와 결부되지 않은 흑인 여성이다.

크리스토피은 앙뜨와네뜨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코즈웨이가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백인 사회와 흑인 노동자 계급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해 고립되었을 때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준 여성이다. “크리스토피가 우릴 배반했다면 우린 벌써 죽었을 게다(I dare say we would have died if she'd turned against us.)”(12)라고 어머니 아네뜨가 말했듯이 그녀는 아네뜨와 앙뜨와네뜨가 남편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억압받고 고통받을 때 두 모녀를 보호해 주었다.

소설의 초반부터 앙뜨와네뜨의 가족은 서인도제도의 백인과 흑인 그 어느 쪽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다. 더구나 흑인들이 백인에 대한 반감의 표현으로 어머니 아네뜨의 말을 독살하였을 때, 아네뜨는 “우리는 이제 머룬화 되었다(Now we are marooned...)”(10)라고 말한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우리는 기동성을 잃었다’ 혹은 ‘우리는 고립되었다’라는 의미지만, 더 나아가 단순히 고립되었다는 의미를 넘어서 저항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문장이다.

실제로 에머리(Mary Lou Emery)가 설명한 것처럼¹⁹⁾ 당시 자메이카에서는 영국의 식민지 정책이 가혹해지고 억압이 심해지자 용맹한 머룬족 청년들이 산

18) Moira Ferguson, “Sending the Young Son Across the Wide Sargasso Sea: The New Colonizer Arrives,” *Colonialism and Gender Relations from Mary Wollstonecraft to Jamaica Kincai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pp. 104-5 참조.

19) Mary Lou Emery, *Jean Rhys at World's End: Novel of Colonial and Sexual Exil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90) pp. 39-43 참조.

으로 피신해 그들만의 소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들의 민족적 정기를 잃지 않으면서 영국인들이나 그들 소유의 말과 노예를 독살시켜 자신들의 불복과 저항을 드러냈다. 특히 머룬족의 매복, 기습 공격, 위장전술 및 주술(마력)은 상당하였다. 고 전해지는데, 주술은 이들의 토착신앙이며 원주민들의 결속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주술은 늘 흑인과 연관되면서 지배자의 억압에 대한 불복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앙뜨와네뜨도 어린 시절부터 주술을 행하는 유모 크리스토프의 곁에서 잠재적으로 그 힘을 감지하고 있었고, 결국 모든 사람으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되자, 이 주술의 힘을 빌어 자아를 되찾으려고 한다.

이처럼 크리스토프와 오베아의 힘은 우리가 자메이카의 원주민들의 역사적 투쟁을 이해하는데 중심이 되며, 계속해서 앙뜨와네뜨의 꿈의 기저에서 정치적, 사회적 투쟁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가 된다. 실제로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앙뜨와네뜨가 주술을 부탁했을 때, 크리스토프는 “오베아는 백인을 위한 것이 아니지요. 백인이 오베아를 가지고 장난치면 나쁜 일이 벌어져요(That is not for béke. Bad, bad trouble come when béke meddle with that.)” (68)라고 말하며, 자신의 주술이 백인에게는 잘 통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경고를 한다²⁰). 하지만 크리스토프의 도움으로 앙뜨와네뜨가 그 사랑의 묘약을 로체스터에게 먹었을 때, 그는 자신이 크리스토프가 만든 그 묘약을 먹었다는 사실을 곧 알아차린다. 결국 이 일로 그의 마음은 앙뜨와네뜨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되고 그녀는 이성적인 사회적, 정치적 테두리 안에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돼버린다. 이제 앙뜨와네뜨는 좀비의 신세가 돼버린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그녀의 영혼과 정체성을 모두 빼앗겨 버린 죽은 자가 된다.

그러나 이런 앙뜨와네뜨를 깨워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크리스토프의 오

20) 크리스토프는 흑인의 토착신앙인 오베아가 문화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고, 백인들에게 있어서는 사회악이나 다름이 없는 형편없는 종교로 간주되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Joya Uraizee, ““She walked away without looking back” : Christophine and Enigma of History in Jean Rhys’ *Wide Sargasso Sea*,” *Literary Criticism* 28 (1999): p. 10, 25 June. 2001 <<http://newfirstsearch.oclc.org/WebZ/FSPage?pagename=ftascii:paget...>>

베아이다. 앙뜨와네뜨의 죽어버린 영혼을 깨워주기 위해 리이스는 앙뜨와네뜨 꿈의 마지막 단계에서 앙뜨와네뜨를 돕는 두 명의 여인을 등장시킨다. 두 번째 꿈에서 이 두 여인은 앙뜨와네뜨의 살 곳이 “여기야, 여기(Here, in here.)” (36)라고 말하는 티아와 크리스토피이다. 앞장에서 앙뜨와네뜨의 더블로 규명된 티아는 이제 두려워말고 우리 품에 안기라고 손짓한다. 세 번째 꿈속에서 다른 여인인 크리스토피는 불붙는 쏘필드에서 앙뜨와네뜨를 살려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좀비가 된 앙뜨와네뜨는 이미 억압받는 부류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크리스토피의 주술이 그녀를 도와준다.

결국 크리스토피는 엄청나게 폭력적인 파괴력을 보여주는 오베아를 통하여 앙뜨와네뜨에게 쏘필드 저택에 실제로 불을 지르게 함으로써 그녀를 한 개인의 역할을 넘어선 억압받는 타자라는 집단적 인물을 대표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크리스토피는 오베아를 행하는 주술사로서 백인들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인공 앙뜨와네뜨에게 불어넣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크리스토피가 행한 오베아는 앙뜨와네뜨의 꿈을 현실로, 그녀의 내부세계를 외부적 사건으로 전환시켜주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²¹⁾.

더 나아가 크리스토피의 언어와 의료행위, 주술은 로체스터의 지배력을 무력하게 함으로써 전복시키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 서인도제도의 언어인 빠뜨와를 구현하는 크리스토피의 어둠의 목소리는 로체스터를 마비시킨다. 로체스터는 그녀와의 쓸데없는 대화를 중단시켜버려야만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그녀의 어둠의 목소리에 그저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마비되어 버렸다(...but could only listen, hypnotized, to her dark voice coming from the darkness.)” (94). 이렇듯 크리스토피의 목소리는 로체스터의 지배담론을 방해하고 압박하며 위계적 질서

21) 이에 대해 세이보리(Elaine Savory)도 오베아가 지배적인 제국주의 담론과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 억압하는 것에 대해 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저항의 도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Elaine Savory. “‘Another Poor Devil of Human Being...’: Jean Rhys and the Novel as Obeah,” *Jean Rhys Review* 7. 1 (1996): pp. 26-38 참조.

를 뒤엎을 가능성도 예시한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그랑브아에 정착한 로체스터에게 서인도제도의 모든 자연경관과 주변인물들이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지고 그곳에 나도는 소문이나 의심마저도 그를 괴롭힌다. 그리고 이 결혼의 희생자가 앙뜨와네뜨가 아닌 로체스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서인도제도는 식민주의자 로체스터의 상상 속에서 자신이 행하고 싶은 모든 욕구의 발현 장소이지만, 이곳에 뿌리를 내려 성장한 아내가 자신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오고 있다고 그는 느낀다.

사실 로체스터의 이런 두려움은 그를 위협하는 이곳 자메이카의 문화를 무시하는데서 나온다. 예를 들면, 처음에 로체스터는 크리스토프의 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녀를 그저 특이한 옷차림을 한, 다른 흑인들과 같은 열등한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크리스토프은 로체스터에게 아멜리나 앙뜨와네뜨처럼 성적 대상이거나 노새처럼 일하는 존재일 뿐이다.

I looked at her sharply but she seemed insignificant. She was blacker than most and her clothes, even the handkerchief round her head, were subdued in colour other for quite a minute. I looked away first and she smiled to herself...(43)

위의 인용에서처럼 로체스터와 크리스토프은 처음 만날 때부터 서로에 대해 거부감과 위협을 느끼는 사이로, 그 정도는 더해간다. 로체스터와의 반감 때문에 크리스토프은 “그 젊은 주인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지요. 나도 그를 매우 싫어하게 될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여기에 계속 머문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이 집에 불화의 씨를 만들 거예요(...the younger master don't like me, and perhaps I don't like him so much. If I stay here I bring trouble and bone of contention in your house.)” (60)라고 말하며 결국 앙뜨와네뜨의 신혼집을 떠나 자신의 집에 머물게 된다. 비록 크리스토프이 로체스터가 있는 곳을 떠났지만 앙뜨와네뜨가 크리스토프과 포옹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들의 모든 사사로운 행동들이 로

체스터의 눈에 거슬리게 되고, 아내 곁에 크리스토펜이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아내에게 빠뜨와로 자장가를 불러주고, 아내의 대변자 역할을 해주는, 즉 아내를 대신해서 자신에게 반박하고 달려드는 크리스토펜을 보며 로체스터는 “그녀의 눈에서 불굴의 투지가 느껴지는, 그녀는 투사였다(...her eyes were undaunted. She was fighter.)” (97)라고 인정한다. 더구나 크리스토펜은 앙뜨와네뜨에게 키스하고, 미소짓고, 춤을 추는 가증스런 행동으로 아버지의 꼭두각시처럼 연기하고 있는 로체스터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차리는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더욱 위협적이다.

When at last I met her I bowed, smiled, kissed her hand, danced with her. I played the part I was expected to play....Every moment I made was an effort of will and sometimes I wondered that no one noticed this. I would listen to my own voice and marvel at it, calm, correct but toneless, surely. But I must have given a faultless performance. If I saw an expression of doubt or curiosity it was on a black face not a white one.(45)

로체스터는 검은 얼굴의 크리스토펜이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가끔은 그에게 “노란색 말 오줌 같은 차를 마시며 거짓말을 해대는(Drink drink their yellow horse piss, talk, talk, their lying talk.)” (50) 영국인들이라고 직접 비난하기도 하고 어머니의 광기를 이유로 앙뜨와네뜨에게 복수하는 그에게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한 값을 언젠가는 치르게 될 거야(As for what you do—you pay for it one day.)” (91)라고 경고하는 그녀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로체스터와 크리스토펜의 반감은 사실 앙뜨와네뜨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도덕적 권위 때문이다. 크리스토펜은 서인도제도의 오빠아만이 영국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여긴다. 비록 로체스터에게 앙뜨와네뜨에 대한 그의 계획을 바꿀 것을 설득하는데는 실

패하지만, 크리스토피은 오베아 때문에 로체스터가 공포를 느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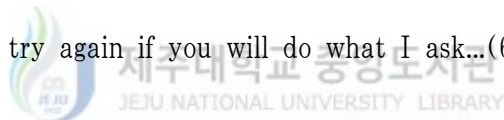
처음에 크리스토피도 자신의 집에 사랑의 묘약을 구하러 온 앙뜨와네뜨에게 오베아보다는 그들 백인이 중시하는 이성적인 방법, 즉 법적인 방법과 대화로 남편과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득하고 앙뜨와네뜨도 이에 동의한다.

Have spunk and do battle for yourself

Speak your husband calm and cool, tell him about your mother and all what happened at Coulibri and why she get sick and what they do to her. Don't bawl at the man and Don't make crazy faces. Don't cry either. Crying no good with him. Speak nice and make him understand.

'I have tried,' I said, 'but he does not believe me. It is too late for that now.'(it is always too late for truth, I thought).

I will try again if you will do what I ask...(69)



그러나 이복오빠 다니엘이 보낸 편지와 다니엘과의 만남에서 드러나게 된 아내 집안의 유전적인 광기와 어머니의 타락은 로체스터에게 어떠한 이해도 구할 수 없을 만큼 이 부부 사이에 간극을 만들어 버린다. 이제 로체스터 마음 속에는 아내의 어떤 말도 들리지 않으며, 그저 다니엘의 간교한 말과 위협적인 언어가 계속 남아있을 뿐이다. 결국 다니엘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메아리치듯이 울리고, 뒤이어서는 크리스토피의 목소리가 로체스터의 안전을 위협하며 들리기 시작한다.

"And then," she went on in her judge's voice, "you make love to her till she drunk with it, no rum could make her drunk like that, till she can't do without it. It's she can't see

the sun any more. Only you she see. But all you want is to break her up.”

(Not the way you mean. I thought)

“But she hold out eh? She hold out.”

(Yes, she held out. A pity)

“so you pretend to believe all the lies that damn bastard tell you.”

(That damn bastard tell you)

Now every word she said was echoed, echoed loudly in my head. (92)

이와 같은 공명 속에서 로체스터는 처음에 크리스토�핀의 목소리에 도전하려고 시도하지만, 그녀에게 동의하게 되고 아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게다가 로체스터의 사고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흑인의 노동요를 닮은 리듬패턴을 따라가게 되고, 그가 침범하여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했던 자메이카 문화에 거꾸로 자신이 당하고 만다.



“She tell me in the middle of all this you start calling her names.

Marionette. Some word so.”

I remember, I did.”

(Marionette, Antoinette, Marionettea, Antoinetta)

“That word mean doll, eh? Because she don’t speak. You want to force her to cry and to speak.”

(Force her to cry and to speak)

“But she won’t. So you think up something else. You bring that worthless girl to play with next door and you talk and laugh and love so that she hear everything. You meant her to hear.”

Yes. that didn’t just happen. I mean it.

(I lay awake all night long after they were asleep, and as

soon as it was light I got up and dressed and saddled Preston. And I came to you. Oh Christophine. O Pheena, Pheean, help me.)

“You haven’t yet told me exactly what you did with my-with Antoinette.”

“Yes I tell you. I make her sleep.” (92-93)

위 인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크리스토퍼의 목소리는 1인칭 화자로 소설을 이끌어 가는 로체스터의 서술에 끼여들어 방해를 하고, 앞서 그가 그들에게 행사했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들을 수정하면서 새로운 식민지 모국의 대표인 로체스터를 침묵시키고 있다.

크리스토퍼와 로체스터가 논쟁하고 있는 동안에도, 앙뜨와네뜨가 침묵하는데, 이 침묵은 크리스토퍼이라는 흑인 토착 세력에 백인 크리올 여성인 앙뜨와네뜨가 동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침묵은 클뢰퍼(Deborah Kelly Kloepfer)가 지적하듯이, 자신의 정체성 탐구를 위한 전략 중 하나이며, 주변화된 인물들과 대화를 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²²⁾. 그래서 앙뜨와네뜨와 크리스토퍼의 목소리도 침묵을 통해 로체스터의 지배적인 담화를 소멸시키고 그의 억압에 적극적인 저항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있다. 이제 로체스터에게 침묵은 서인도제도의 숲이 주는 공포만큼 “너무도 두려운 것이었다(The silence was disturbing, absolute.)” (59). 그러므로 리이스는 로체스터를 침묵시킬 수 있는 크리스토퍼를 통해 한번 더 지배 이데올로기의 전복을 시도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크리스토퍼는 자신의 집에 찾아 온 앙뜨와네뜨를 재우고, 또 로체스터 앞에서 다시 그녀를 재움으로써 앙뜨와네뜨를 꿈의 세계로 안내한다. 꿈속에서 앙뜨와네뜨는 자신의 잃어버린 목소리와 정체성을 찾고, 로체스터에게 저항한다. 결국 앙뜨와네뜨가 세 번 꿈을 꾸는 동안 서서히 크리스토퍼

22) Deborah Kelly Kloepfer, *The Unspeakable Mother: Forbidden Discourse in Jean Rhys and H.D.* (Ithaca, NY: Cornell UP, 1989) pp. 56-79 참조.

핀은 앙뜨와네뜨에게 피지배자로서의 억압의 역사를 전복시킬 수 있는 힘을 전수한다. 이에 대해 스피박(Gayatri Spivak)도 식민지의 원주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크리스토폴의 행동을 ‘타자들의 저항을 위한 안내자’의 역할이라고 풀이하면서, 이것은 반식민주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질 때 더욱 가치가 있다고 풀이했다²³⁾. 이제 스피박의 주장처럼 반란의 최절정 행위라 할 수 있는 쏘필드 저택 방화의 순간은 *Wide Sargasso Sea*에서 서구 사회와 남성 지배이데올로기의 억압으로부터 도피 및 저항이라는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3) Gayatri Spivak, "Theory in the Margin: Coetzee's Foe Reading Defoe's *Crusoe/Roxana*," *Consequences of Theory: Selected Papers from the English Institute, 1987-88* (1991): p. 172.

IV. 결 론

제국주의와 가부장적 권력구조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가 팽배하던 19세기에 계급, 인종, 성별 면에서 열등한 타자의 범주에 속했던 여성과 유색인종들은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인 면에서 유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유색인과 여성들이 처했던 이런 상황 때문에 이들은 억압과 소외의 대상이 되어 유럽인들의 인종적 차별과 멸시를 경험하고 그들로부터 유린당해 왔다. *Wide Sargasso Sea*에서도 19세기 서구 문명의 대표자로 그려지는 로체스터는 지배계급의 도덕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소위 '나쁜 피'가 섞인 앙뜨와네뜨의 정신과 행동을 계속해서 통제한다. 그리고 그녀 외에 다른 유색인물들, 즉 타자들인 티아, 흑인 간호자, 아멜리, 뱀띠스뜨 특히 다니엘, 크리스토피를 적대시하며, 그들을 통제하고 억압함으로써 자신의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구속력을 행사한다.

유색인들에게 가하는 가부장적 제국주의의 억압 가운데서도 로체스터가 온전한 인간인 앙뜨와네뜨의 정신을 박탈해 버리고, 그녀를 유령 같은 존재로 만들어 버린 사실은 식민지 타자들의 기본 권리마저 침해하는 폭력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자신의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앙뜨와네뜨에게 하나씩 실행해 갈 때마다 그녀는 점점 더 그에게 굴복하게 되고, 자신의 목소리도 잃게 된다. 더욱이 그가 아내의 이름을 버사라고 부르고 영국의 저택에 감금하여 광녀로 몰아갈 때 그의 제국주의적 억압은 극에 달한다.

그러나 앙뜨와네뜨는 자신이 감금된 쏘필드 저택에 방화를 함으로써 로체스터의 지배를 벗어나고 억압적 상황을 극복하게 된다. 그녀가 소설의 마지막에서 분열되었던 자아를 통합하고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준 힘은 바로 로체스터의 억압적 지배에 대항하는 저항의 힘을 통해서였다. 그에 대한 분

노와 저항을 통해 앙뜨와네뜨는 자신을 광녀로 치부해 쏜필드 저택의 다락에 방치하고 제인과 중혼을 하려던 그의 숨은 계획을 간파한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신이 '왜 여기에 와 있는지' 를 알게되면서 그의 지배 실체를 인식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를 자각하면서 결국 그 때까지 자신을 억압해온 모든 지배체제, 즉 가부장적 제국주의의 지배와 억압을 걷어차 버리고 왜곡되고 은폐되었던 정체성을 되찾고 있다.

더 나아가 앙뜨와네뜨가 은폐되고 왜곡된 지배체제 속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고 분열된 자아를 통합할 수 있게 해주는 또 다른 힘은 바로 작품 속에 나타나는 유색인종들, 타자들과의 동일시를 통한 것이었다. 노예해방령 이후 백인 농장주들의 몰락을 계기로 자유를 얻게된 흑인들은 가난한 백인을 조롱하고 자신들이 일하던 농장에 방화를 하며 저항을 드러냈는데, 이 타자들의 저항은 침묵, 조롱, 모방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억압받는 앙뜨와네뜨에게 동일시를 통해 그들이 지닌 저항의 힘을 전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앙뜨와네뜨와 타자들은 로체스터의 억압에도 그의 강력한 힘을 인정하지 않고 더욱 저항하였다. 풀리브리를 불태우던 흑인들의 저항의 기운은 아멜리와 다니엘, 뱍띠스뜨, 크리스토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저항의 기운은 아멜리의 조롱과 다니엘의 모방, 뱍띠스뜨의 침묵, 크리스토프의 오베아의 힘으로 표출되고 모두 앙뜨와네뜨에게로 전수되고 있다.

다니엘은 로체스터의 비열한 행동을 경멸하기도 하지만 그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차별성과 위계질서를 위태롭게 하여 식민지에서 로체스터의 권력을 와해시키는 저항을 보여주고 있다. 아멜리는 로체스터의 이중적 태도를 직접 조롱하는 대담함을 보여준다. 또 뱍띠스뜨, 마이라 그리고 작품 속에서 사라지고 난 후의 크리스토프 이들 모두는 저항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침묵을 사용하고 있다. 크리스토프은 침묵 외에도 서인도제도의 토착 신앙인 오베아를 사용함으로써 로체스터의 지배와 억압에 맞설 수 있도록 앙뜨와

네뜨에게 저항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비록 그녀는 로체스터에 의해 그랑브와를 떠나게 되었지만, 오베아를 통해 앙뜨와네뜨를 고통으로부터 구해낸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정체성을 잃고 억압받는 앙뜨와네뜨에게 방화를 지시함으로써 꿈을 현실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개인의 역할을 넘어서 타자들의 저항을 실현시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앙뜨와네뜨의 소중한 공간인 서인도제도도 로체스터가 의도적으로 아내를 외면하고 감금시켜 증오와 고통의 공간으로 변하게 되었지만, 결국 앙뜨와네뜨는 티아, 아멜리, 뱀띠스뜨, 다니엘, 크리스토피이라는 타자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공간을 되찾고 있다.

저항을 핵심 주제로 *Wide Sargasso Sea*를 분석하여 본 결과, 리이스는 로체스터의 지배적 감시체제와 가부장적 제국주의가 초래한 억압과 고통을 앙뜨와네뜨를 비롯한 타자들, 즉 티아, 흑인 간호자, 아멜리, 뱀띠스뜨, 다니엘, 크리스토피의 저항으로 극복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비평에서 제외되거나 그 역할이 축소되어 해석된 유색인들의 말과 행동, 모습들은 앙뜨와네뜨가 정체성을 찾기 위해 행했던 저항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작가는 미약하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이 타자들이 보여준 저항의 힘이 앙뜨와네뜨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중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들의 저항의 힘이 영국의 지배담론을 행사하는 로체스터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타자화 된 삶의 경험으로부터 창조된 주인공 앙뜨와네뜨와 유색인들을 통해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시대 상황을 폭로하면서 인간다운 삶의 모습은 바로 고통스러운 현실을 저항하여 극복하는데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Bibliography

- Abel, Elizabeth. "Women and Schizophrenia: The Fiction of Jean Rhys." *Contemporary Literature* 20. 2 (1979): pp. 155-77.
- Alcoer, Rudyard Joel. *Beyond hybridity: Discourses of Heredity in Caribbean narrative*. Iowa: Iowa University Press, 2002.
- Angier, Carole. *Jean Rhys*. Middlesex: Penguin Book Ltd., 1985.
- Ashcroft, Bill, Gareth Griffiths, and Helen Tiffin. *Empire Writes Back: Theory and Practice in Post-Colonial Literatures*. London: Routledge, 1989.
- Azim, Firdous. *The Colonial Rise of the Novel*. New York: Routledge, 1993.
- Bhabha, Homi.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1994.
- _____. "The Other Question: Difference, Discrimination, and the Discourse of Colonialism." *Literature, Politics, and Theory: Papers from the Essex Conference 1976-84*. London: Methuen, 1986. pp. 148-72.
- _____. "Signs Taken for Wonders: Questions of Ambivalence and Authority under a Tree Outside Delhi, May 1817." "Race," *Writing and Difference*. Ed. Henry Louis Gate J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85. pp. 163-84.
- Brathwaite, Kamau Edward. *Contradictory Omens: Cultural Diversity and Integration in the Caribbean*. Kingston, Jamaica: University of the West Indies, 1974.
- Brontë, Charlotte. *Jane Eyre*. New York and London: W · W · Norton & Company, Inc., 1987.

- Ciolkowski, Laura E. "Navigating the *Wide Sargasso Sea*: Colonial History, English Fiction, and British Empire."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43. Fall (1997): pp. 339-59.
- Dalton, Elizabeth. "Sex and Race in *Wide Sargasso Sea*." *Partisan Review* 67. Summer (2000): pp. 431-42.
- Drake, Sandra. "Race and Caribbean Culture as Thematics of Liberation in Jean Rhys' *Wide Sargasso Sea*." *Wide Sargasso Sea*. Ed. Judith L. Raitskin. New York: Norton, 1999. pp. 193-206.
- Emery, Mary Lou. *Jean Rhys at World's End: Novel of Colonial and Sexual Exil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90.
- Fanon, Frantz. *The Wretched of the Earth*. Trans. Constance Farrington. New York: Grove Weidenfeld, 1963.
- _____. *Black Skin White Mask*. New York: Grove Press, 1967.
- Fayad, Mona. "Unquiet Ghosts: The Struggle for Representation in Jean Rhys' *Wide Sargasso Sea*." *Modern Fiction Studies* 34. 3 (1988): pp. 437-52.
- Ferguson, Moira. "Sending the Younger Son Across the *Wide Sargasso Sea*: The New Colonizer Arrives." *Colonialism and Gender Relations from Mary Wollstonecraft to Jamaica Kincai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pp. 90-115.
- Francis Whyndham, Diana Melly eds. *Jean Rhys: Letters, 1931-1966*. London: Andre Deutsch, 1984.
- Gilman, Sander L. *Difference and Pathology: Stereotype of Sexuality, Race and Madness*. Ithaca: Cornell UP, 1985.
- Gregg, Veronica Marie. *Jean Rhys' Historical Imagination: Reading and Writing the Creole*. Chapel Hill & Lond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5.
- Harrison, Nancy. *Jean Rhys and the Novel as Indian Novel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6.

- _____. *Jean Rhys and the Novel Women's Text*.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8.
- Howells, Coral Ann. *Jean Rhys*. London: Harvester Wheatsheaf, 1991.
- Hulme, Peter. *The Locked Heart: The Creole Family Romance of Wide Sargasso Sea. Colonial Discourse/Postcolonial Theory*. Ed. Francis Barker, Peter Hulme, and Margaret Iversen.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4.
- Kendrick, Robert. "Edward Rochester and the Margins of Masculinity in *Jane Eyre* and *Wide Sargasso Sea*." *Papers on Language & Literature* 30 (1994): pp. 235-56.
- Kloepfer, Deborah Kelly. *The Unspeakable Mother: Forbidden Discourse in Jean Rhys and H.D.*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9.
- Knapp, Bettina L. *Women in Twentieth-Century Literature: A Jungian View*. Pennsylvania: Pennsylvania UP, 1998.
- Lewis, Gordon K. *Main Currents in Caribbean Thought: The Historical Evolution of Caribbean Society in Its Ideological Aspects, 1492-1900*.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3.
- Long, Edward. *The History of Jamaica or General Survey of the Ancient and Modern State of That Island: With Reflections on Its Situations, Settlements, Inhabitants, Climate, Products, Commerce, Laws and Government*. Vol. 2. London: Frank Cass, 1970.
- Mardorossian, Carine Melkom. "Double (De)colonization and the Feminist Criticism of *Wide Sargasso Sea*." *Literary Criticism* 26. Spring (1999): pp. 1-23, 24 June. 2001
 <<http://newfirstsearch.oclc.org/WebZFSPage?pagename=ftascii:paget...>>
- Mezei, Kathy. "And it Kept its Secret: Narration, Memory, and Madness in

- Jean Rhys' *Wide Sargasso Sea*." *Critique* 28 (1997): pp. 145-77.
- Ragetz, Lowell Joseph. *The Fall of the Planter Class in the British Caribbean, 1763-1833: A Study in Social and Economic History*. New York: Century, 1928.
- Ramchand, Kenneth. Introduction. *Tales of the Wide Caribbean*. London: Heinemann, 1985. pp.1-21.
- Rhys, Jean. *Wide Sargasso Sea*. New York and London: W · W · Norton & Company, Inc., 1999.
- _____. *Wide Sargasso Sea with Essays in Criticism*. Annotated with a Critical Introduction by Junggil Yoon. Seoul: Hanshin Publishing Co., 1997.
- Savory, Elaine. *Jean Rhy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_____. " ' Another Poor Devil of Human Being...' : Jean Rhys and the Novel as Obeah." *Jean Rhys Review* 7. 1 (1996): pp. 26-38.
- Schapiro, Bhabara Ann. "Boundaries and Betrayal in Jean Rhys' *Wide Sargasso Sea*." *Literature and Relational Self*. New York: New York UP, 1994. pp. 84-104.
- Spaull, Sue. "Gynocriticism, Jean Rhys *Wide Sargasso Sea*." Ed. Sara Mills, Lynne Pearce, Sue Spaull, and Elaine Millard. Charlottesville: UP of Virginia, 1989. pp. 83-121.
- Spivak, Gayatri. "Three Women's Text and a Critique of Imperialism." *Critical Inquiry* 12 (1985): pp. 243-61.
- _____. "Theory in the Margin: Coetzee's Foe Reading Defoe's *Crusoe/Roxana*." *Consequences of Theory: Selected Papers from the English Institute 1987-88*. Baltimore: John Hopkins UP, 1991. pp. 154-80.
- Thomas, Sue. *The Worlding of Jean Rhys*. Westport, Connecticut and London: Greenwood Press, 1999.
- Tiffin, Hellen. "Mirror and Mask: Colonial Motif in the Novel of Jean Rhys."

- World Literature Written in English* 17 (1978): pp. 328-41.
- _____. "Post-Colonialism, Post-Modernism and the Rehabilitation of Post-Colonial History." *Journal of Commonwealth Literature* 23. 1 (1988): pp. 170-198.
- Uraizee, Joya. " "She walked away without looking back" : Christophine and the Enigma of History in Jean Rhys' *Wide Sargasso Sea*." *Literary Criticism* 28 (1999): pp. 1-17. 25 June. 2001 <<http://newfirstsearch.oclc.org/WebZFSPage?pagename=ftascii:paget...>>
- Woolf, Virginia. *A Room of One's Own and Three Guineas*. London: Hogarth Press, 1984.
- Zimring, Rishona. "The Make-up of Jean Rhys' Fiction." *Novel* 33. Spring (2000): pp. 212-34.
- 김정매. "해체적 글쓰기: 진 리이스의 『드넓은 사가소 바다』 --샬롯 브론테의 『제인에어』와의 비교연구". 『영미문학 페미니즘』 제3집 (1996): pp. 7-34.
- 김지영, 정혜욱, 유제분. 『탈식민페미니즘과 탈식민페미니스트들』. 서울: 현대미학사, 2001.
- 릴라 간디.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이영욱 역. 서울: 현실문화연구, 2000.
- 바트 무어-길버트. 『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 이경원 역. 서울: 한길사, 2001.
- 에드워드사이드. 『문화와 제국주의』. 김성곤·정정호 역. 서울: 도서출판 창, 2000.
- 윤정길. "억압받는 자의 "광기": 진 루이스의 『광활한 사가소 바다』 연구".

- 『영어영문학』 제42권 1호 (1996): pp. 119-39.
- _____. “바흐찐의 대화이론과 진리스의 『광활한 싸가소 바다』”. 『영어영문학』 제44권 2호 (1998): pp. 339-62.
- _____. “19세기 영국 소설에 나타난 백인 여성과 유색인종간의 이미지 동질성 연구”. 『영미문학 페미니즘』 제9권 1호 (2001): pp. 71-102.
- 이경순. “진 리이스 소설에 나타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영미문학 페미니즘』 제1집 (1995): pp. 111-29.
- 정미경. “『제인에어』에 나타난 빅토리아조의 성/계급 이데올로기”. 『영어영문학』 제46권 1호 (2000): pp. 159-75.
-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서울: 여이연, 2001.



Abstract

The Resistance of Others in Jean Rhys' *Wide Sargasso Sea*

Kim Jung-hae

Dept. of English Lang. & Lit.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or: Prof. Kim Sun-he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resistance of the Others to Western cultural hegemony in Jean Rhys' *Wide Sargasso Sea*.

Jean Rhys rewrites on subverting a Western Feminist bildungsroman to create a clear history for the Caribbean Creole woman in *Jane Eyre*. Rhys notices the prejudice against white women and coloured people in the 19th century. White women like Bertha/Antoinette who are sexually aggressive and rebellious, who fight for their rights and individual identities are usually linked to people of "dark race" or coloured people.

Rhys, however, argues through the Creole woman, Antoinette that the

colonized people totally silenced, dehumanized, and mistreated in the earlier colonial text should have their voice. Rhys' argument is due to her experience and the circumstances in the West Indies. Due to her racial class, Creole, Rhys could not easily assimilate into the white or black community. *Wide Sargasso Sea* contains the autobiographical aspect of the writer, and addresses the issues of the marginalized and oppressed. She also raises the significance of the racial, historical, and sociolocational aspects of Antoinette's identity.

The important thing is that Rhys' constitutive otherness from her experience in the West Indies helps Antoinette and coloured people to resist. In this process, Rhys gives special weigh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Antoinette and the slaves, and explores how they forge an alliance overcoming their confined and oppressed situation.

Chapter II attempts to show the doubles' effort and common bonds to get over the racial differences and resist the oppression of the Empire. Chapter III and IV explore the English man's (Rochester) oppressive situation standing for Imperialism and resistance represented by Amelie's ridicule, Baptiste's silence, Daniel's copying, and Christophine's Obeah. All of them give the power of resistance to Antoinette. Daniel manipulates Rochester through mimes and suggests the possibility of resistance which poses a serious threat to the interest and security of the Empire. Baptiste, Myra, and Christophine after disappeared from the novel recognize that their silence is one strategy for resistance. In addition, Christophine gives Antoinette her ability to fight Rochester's domination. Therefore, what Rhys emphasizes is that the Others have to get over the oppression by their resistance.

In conclusion, Rhys associates the resistance of Others to Patriarchy and

Imperialism referring to Creole as Other of European, woman as Other of man, and the Black as Other of the White. Rhys makes attempts in this work to make Antoinette represent Others in the Colonial era, and conveys Postcolonial insights to us.

